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mailto: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 주간 NEWS

- ▶ 중국 인공호흡기는 어떻게 전세계의 구원투수가 되었나 (이오왕 亿欧网, 2020.4.23)
- ▶ 달마원 가상과 실재를 혼합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개발  
(봉황과기凤凰科技, 2020.4.22)
- ▶ 3년 연속 하락하는 대륙의 자동차 제조사 비야디의 전략은 반도체 (신경보新京报, 2020.4.22)
- ▶ 순평택배, 코로나 전선에서 수입은 늘었으나 이익은 늘지 않았다 (36kr, 2020.4.26)

## ISSUE 및 시장동향

- ▶ 투자자는 올해 어느 방향을 주목하는가? — 36kr 제공
- ▶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화 — 후씨우왕(虎嗅网) 제공
- ▶ 십년 된 아이치이(爱奇艺), 돈 벌 수 있을까 — 후씨우왕(虎嗅网) 제공
- ▶ 양자컴퓨터 시리즈 44) 미래 컴퓨터의 최종 모습은 양자 컴퓨터  
— 과기전언기술추종(科技前沿技术追踪)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짐로저스 "반드시 사상 최악의 위기가 온다"' (동양경제 온라인, 2020.4.23)
- ▶ '코로나대공황' 일본인에 다가오는 커다란 난제 (동양경제 온라인, 2020.4.20)
- ▶ 일본은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인재다 (Newsweek, 2020.4.23)
- ▶ 코로나위기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일본제조업의 불편한 진실 (JB press, 2020.4.20)
- ▶ 코로나 쇼크가 드러낸 "일본인의 어리석은 근로방식" (President Online, 2020.4.22)
- ▶ 일본이 코로나 사망자를 과소신고했을 가능성은 있는가? (Newsweek, 2020.4.21)
- ▶ 국민의 목숨보다 돈을 고집하다 늦은 올림픽 연기 판단 (Harbor Business, 2020.4.20)
- ▶ 코로나위기로 관광수요가 순간증발... 여기서 보이는 일본경제의 문제점 (PRESIDENT Online, 2020.4.21)
- ▶ 멈추지 않는 "도쿄일극집중"으로 보는 강렬 리스크 (동양경제온라인, 2020.4.21)
- ▶ 코로나 위기의 일본에서 본 "전례주의"의 병리, 구일본군의 실패를 되풀이할까 (DIAMOND,

2020.4.22)

- ▶ “산소흡입기 부착 자본주의”가 이끄는 코로나 위기 (동양경제 온라인, 2020.4.21)
- ▶ 코로나사태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계기인가? “중앙집권형 공업사회”에서 “지방분권형 생명사회”로 (The PAGE, 2020.4.25)
- ▶ “신종 폐렴” 왜 긴급사태선언 발령은 늦었졌는가 (Voice, 2020.4.25)

##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 ◆ 과학기술

- ▶ 장강, 전염병 통제기간에도 수질 모니터링 작업 강화 (2020.3.10)

### ◆ 금융

- ▶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비, 천억 위안 초과 (2020.2.27)
- ▶ 공신부, 사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에 대한 요금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 (2020.3.4)
- ▶ 각지 세무 기관은 “사력”(四力)에 초점을 맞춰, 방역과 발전을 위해,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 (2020.3.10)

### ◆ 의료

- ▶ 시진핑, 북경서 코로나 연구 및 대응 상황 시찰시 코로나연구를 공동추진하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과학기술적 뒷받침이 되어야한다고 강조 (2020.3.2)
-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회사업무재개에 대한 방제지도 강화 (2020.3.9)

### ◆ 정책

- ▶ 교통운수부, 선박선원 covid-19전염병 예방통제 운영지침 발표 (2020.3.3)
- ▶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통제 일선 의료인원에 대한 인사격려조치에 관한 업무지침 (2020.3.5)

### ◆ 취업

- ▶ 퇴역군인사무부: 10가지 조치, 전역군인 취업창업 촉진 (2020.3.14)

## KIC 중국 NEWS

- ▶ KIC중국, 중국기술거래소와 MOU 체결 (2020.4.22)

## 주간 NEWS

## 1. 중국 인공호흡기는 어떻게 전세계의 구원투수가 되었나 (이오왕 亿欧元, 2020.4.23)

생과 사의 모두 호흡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사진 1) 출처: 123RF

위에도진(岳德俊)은 최근 2개월간 적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위챗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대략 반달 전에 매일 거의 10 명의 사람들이 저와 위챗을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추가하고 나서는 바로 저에게 호흡기 제품이 현재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죠.” 그는 줄곧 수면호흡기 시장에 종사한 Ningbo Junjie Medical Device Co., Ltd.의 책임자다.

이 작은 시장에서 한 번 이와 같이 활약하는 데에는 이미 17 년 전 사스 시기가 있었다. 이때 해외 거두가 독점 용머리로 들어와 지금에 이르렀다. 중국내 호흡기 기업은 이미 빠르게 따라잡았다. 17 년 후 전염병 상황은 중국산 호흡기에 ‘명성’을 부과했고, 심지어 추월하는 기회를 주었다.

3 월 초 시작하여 마스크, 체온 측정건 등 방역 용품 수출 수요가 아직 정상으로 회복하지 않은 때부터 호흡기를 찾는 소리와 나에게 물건이 있다는 소리가 이미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생과 사, 모두 호흡기 유무의 일선에 놓여있다. 해외시장의 공급이 부족하고 중국 호흡기 제조사는 유럽 미국 시장을 ‘뚫을’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넘치는 의료용 호흡기의 수요가 오히려 중국산 의료용 호흡기 산업이 감당치 못할만큼 크다는 것이다. 전염병이 공급체인에 가한 타격으로 인해 이러한 제조사 생산능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4 월 7 일 중국은 기업의 생산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각국의 급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스위스 등 호흡기 중요부품 공급사에게 공급을 대폭 증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정품 브랜드’를 대체할 수 없을 때, 장기간 ‘예비용’이었던 중국내 호흡기 부품 공급사들, 예를 들면 소형 고성능 터빈팬을 생산하던 베이펑과기(贝丰科技) 등은 이를 중국내 시장에서 ‘도약’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하나는 해외시장에서 ‘뛰어나고’, 하나는 중국내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려 한다. 이러한 배후에는 중국산 의료용 호흡기가 중국 시장에서 장기간 ‘큰 파이’를 나누기 어려웠고, 사람에 의해 제한받는 난처한 모습이 있었다. 전염병 상황 하에 중국산 의료 호흡기와 중요부품의 생산은 오히려 전세계 호흡기의 생산 능력 문제를 구제하기 시작했다.

### ‘예비용이 정품으로 전환되다’: 중국산 핵심부품이 수출품을 대체

“프랑스 측에서 프랑스 지배 주주였던 SUPOR(苏泊尔)를 통해 나른 찾아왔다. 처음에는 1 만대의 터빈팬을 요구했다.” 베이펑과기(贝丰科技) CEO 웨이씨명(魏希盟)은 전체 전염병 기간동안 특별히 바빴다. 연달아 두 세건의 전화와 회의 요구를 받는 것이 그의 생활이었다. “우리들은 현재 모두 우선 중국내에 공급하고, 1 만개 현물도 모자라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

2월17일 베이펑과기는 항저우의 공장을 재개했다. 이 때부터 연속하여 큰 주문이 밀려들어와 소화할 수 없을 정도였다. “원래 한 주문이 50000 개면 큰 주문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주문이 되었다.” 라고 웨이씨명은 감탄했다.

2011 년부터 고성능을 내포한 미니 터빈팬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18 년 회사를 설립했다. 베이펑과기는 이 산업에서 줄곧 어려웠던 중국산화의 취약부분을 보충했다.

원래 이 특별한 성능의 팬을 생산할 수 있는 아시아의 극히 소수의 기업이었다. 그러나 성립 초기에 베이펑과기는 도리어 세계시장에 진군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다. 우리들은 주로 북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과 남미 지역에 공급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핵심 부품시장이 장기적으로 수입품 브랜드에 점령된 결과다.

중국내 대부분 의료기기는 주문량이 작고, 품종이 많고, 평소 판매량이 작아 많은 제조사가 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료용 호흡기의 터빈팬 기술의 성체는 비교적 높아 일반 제조사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의료 호흡기 시장에서 핵심 부품 터빈 팬의 압력, 흐름, 수명, 신뢰도는 매우 높다.” 웨이씨명이 말했다.

비교하여 정밀의료기기 방면에서 일찍이 유럽과 미국은 현저히 뛰어난 기능을 구축해왔다. 전염병 발생 전, 중국내 호흡기 제조사는 기본적으로 스위스의 Micronel, 미국의 Honeywell, 일본의 SMC 등 회사의 수입에 의존해왔다.

“의료기기의 핵심부품의 대체성은 높지 않다. 제조사는 당신의 기계 성능이 별 차이없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바꾸지 않는다.” 라고 웨이씨명은 지적했다. “호흡기 비용에서 보자면 거의 몇 천짜리와 몇 십만의 호흡기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많은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나 만일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아주 크다.”

수입 브랜드의 기능과 사용자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중국내 시장의 견고하고 높은 벽을 구축했다. 그리고 전염병 상황은 하나의 열쇠로 국내 제조사에게 하나의 문을 열어주었다.

유럽 미주 지역의 전염병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호흡기의 핵심 부품 물류도 지장을 받게 되었다. 공급체인은 위기에 약해 호흡기의 대외 공급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못해 이때부터, 대량의 호흡기 주문을 중국내 호흡기 제조사가 감당할 수 있어. 핵심부품에 대한 눈길을 국내 제조사로 돌리기 시작했다.

상하이에 위치한 중국 전자과기그룹회사 제 21 연구소 산하 회사는 이전에 연구개발한 것을 기초로 단지 3 일만에 과학 기술 연구에 몰두하여 중국산 소형 전동기를 호흡기에 설치했고 테스트를 거쳐 지표가 모두 표준에 도달하게 했다.

174km 밖에 있는 항저우, 베이핑과기는 이전에 노력을 기울여 해외 큰 주문을 획득했다.

3 월 20 일 통용자동차(通用汽车)와 호흡기 제조사 Ventec Life Systems 는 합작을 선포했다. 베이핑과기는 터번팬의 유일한 공급사로 약 6000 만 달러의 큰 주문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3 월 24 일까지 베이핑과기의 중국내 주문량은 이미 5000 만위안을 초과했다.

“원래 접촉하기 힘들던 호흡기 제조사 모두 와서 물어봅니다” 웨이씨명은 이것을 보며 예비타이어가 정품으로 전환하는 ‘좀처럼 오기 힘든 드문 기회’라고 했다. “우리들은 국내 시장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거듭된 주문으로, 베이핑과기는 4 월 중순 후 생산능력을 원래 이삼천에서 삼사천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들은 생산량을 늘릴 방도를 매일 회의하고 의논합니다. 장소를 넓히고, 사람을 확충하고 일교대 근무를 이교대 근무 심지어 삼교대 근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웨이씨명은 “20 여 만건의 주문을 다 해내려면 거의 일년동안 계속 생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국내 레드오션 시장하에 제 3 세계 국가로 ‘출정’

사실상, 전염병 발생 전 중국산 핵심부품은 중국내에서 푸대접 받아왔고 이는 산업 체인 속에 떠다니던 중국산 의료용 호흡기가 처한 실제 묘사이기도 하다.

지난 세기 90 년대부터 첫번째 수입 브랜드의 호흡기가 중국에 진입했고 2003 년 사스 시기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의료용 호흡기라는 특수 수요의 고급 정밀 의료기기 산업이 인식되었다. 기술 성체는 높은 담을 구축했고 병원 사용자의 밀접함은 견고하여 외부에서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업계였다.

치차차(企查查) 데이터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보유한 호흡기 등록 기업은 단지 31 개사이며 외과적 호흡기 생산기업은 단지 21 개사에 불과하다.

저급한 가정용 호흡기 시장은 일찍이 수입품을 대체했다. 웨이씨명은 중국내 가정용 호흡기 시장은 이미 한 편의 레드오션이고 각 큰 브랜드 모두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금자탑 끝의 첨단시장측은 외자와 중국산 브랜드가 상호경쟁을 벌이는 또다른 장면을 보이나 위에더쥘(岳德俊)이 보기에 의료용 호흡기 역시 레드오션에 진입했다.

동성증권(东兴证券)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의료용 호흡기는 기본적으로 5 년 사용으로 계산되어, 매년 교체할 호흡기 수량이 약 64546 대가 된다. Dräger, Hamilton, Mindray Medical 월 평균생산 능력은 1000 대 정도로 이 시장의 증가 공간은 그리 크지 않다.

현재 의료용 호흡기는 일반적으로 비외과 호흡기와 외과적 호흡기 2 개의 대분류로 구분한다. ECMO 는 외과적 호흡기 중 가장 고급의 비싼 일종이다. 그리고 매 세부 트랙에서 여전히 ‘등급’ 구분이 있다. 핵심 기술은 핵심부품 터번팬, 칩, 감응기와 알고리즘 등 모두가 호흡기의 임상 효과를 해결하고 있다.

줄곧 중국 정밀 의료기기 산업과 해외는 거대한 차이가 있었다. 고급 의료 기기 역시 재난을 요행으로 면할 수 없다. 비교적 늦게 시작한 중국 의료용 호흡기 산업은 핵심 부품이 타인에게 제한을 받는 동시에 대부분 제조사가 여전히 원래 기술 제품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단계로 기능과 품질측면에서 수입 브랜드에 뒤처졌다.

그리고 협소한 첨단 시장에서 해외 거두 Dräger 와 McVeigh 가 이미 포진해 있다. 중신증권(中信证券) 연구 보고서에서는 2017 년 국내 호흡기 장비 시장은 외국 자본이 주도했으며 이중 Dräger, Medtronic, Mai Kewei 가 각각 35.8 %, 19.2 %, 15.8 %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국내 기업 완더의료(迈瑞医疗)와 이안의료(谊安医疗)의 시장 점유율은 3 %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환자의 '최후의 구명 지푸라기'로 간주되는 ECMO 는 McKewell, Medtronic, Rinovar 3 개사가 헤드 시장을 독점한다.

병원인사와 여러 호흡기 업계 경험이 풍부한 인사의 피드백에 따르면, 중국 일선 도시 3 갑 (三甲)병원의 호흡기는 기본적으로 수입 브랜드가 모두 점령했다. —“해머턴의 C3 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 “상하이 화산병원(华山医院) ICU 병실안의 호흡기는 모두 수입품이다.”라고 전한다.

어떤 업계 인사는 지적하길 중국내 3 갑 병원의 호흡기에 대한 요구는 기본적으로 비쌀수록 좋다고 한다. 사람의 목숨이 기계에 달려있어 성능이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수입 기계의 성능이 중국산보다 높을 때,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해보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3 갑 병원의 보수적인 태도는 수입 의료용 호흡기에 대해 깨기 어려운 점성을 주조했다. 위에더쥬(岳德俊)은 중국 의료용 호흡기 대다수는 여전히 중저가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중국내 이삼선 도시의 병원에서 구매한다고 털어놓았다. 귀위엔증권(国元证券)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급 외과적 호흡기 가격은 약 35~40 만 위안이고, 중저가 수준의 가격은 24 만위안이며 심지어 15 만 위안 이하인 것도 있다.

견고하고 안정적인 시장안에서 기회를 찾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고급 시장을 공략하려면 현재 기술이 견고한 것 외에 수단상 여전히 루트가 왕도다.”라고 위에더쥬는 말한다. '헤드 브랜드는 대부분의 시장을 독점한다. 중국산 호흡기는 단지 루트와 자원에 의존하며, 어느 병원에 자신의 브랜드를 선택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본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중국산 브랜드도 일선 도시 큰 병원의 구매 명단에 진입했다.”

중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속에 적지 않은 호흡기 제조사도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더쥬(岳德俊)의 소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중국내 호흡기 제조사의 수출은 기본적으로 중동, 인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제 3 세계 국가들이며 유럽 미국 시장에 입주한 것은 아주 드물다고 했다.

이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수요에 응하는 중국 호흡기 기업 중, 그들의 생산능력은 비록 높지만 수출인증은 오히려 눈앞에 놓인 난제다. 현재 중국 비외과식 호흡기 제조사 중 유럽 연맹의 CE 인증을 획득한 곳은 5 개 사에 불과하며, 외과식 호흡기 생산 기업 중에서는 단지 8 개 사만이 유럽 연맹의 강제성 CE 인증을 취득했고 FDA 인증은 더 극소수이다.

**전염병 상황은 적자 시장을 요구한다.**

3 월 첫째 주, 해외 전염병의 형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완더의료(迈瑞医疗)의 해외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첫 번째 큰 주문은 중동국가로부터 왔다. 며칠이 지나 이탈리아 정부가 긴급히 완더의료에게 첫번째로 만대에 가까운 호흡기 등 방역장비를 구매했다.

“이러한 국가들은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만 유럽 미국 시장 본토의 호흡기 기업은 이미 선두여서 수입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위에더쥘(岳德俊)은 이러한 나누기 힘든 국내 대부분의 시장 점유액은 도리어 생산능력이 우수한 중국산 호흡기 기업에게 궁극적으로 유럽 미국 시장에 오를 기회를 만들었다.

현재 FDA 와 유럽 연맹은 각국 호흡기 제조사와 논의하여 긴급 사용권한 (EUA) 을 찾도록 격려하도록 선택했다. 완더의료는 외과식 호흡기, 위위에의료(鱼跃医疗)의 비외과식 호흡기는 모두 연속적으로 FDA 긴급 사용권한을 획득했다.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내 호흡기 제조사는 연이어 새로운 생산 라인을 투입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주중국대사관이 직접 전화를 내게 걸어옵니다. 우리들은 이미 몇 백대를 공급했지만 그들은 아직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완더의료 동사장 리씨팅(李西廷)은 현재 이미 수많은 정부 관원과 외국 대사의 전화를 접했다며 예외없이 모두 호흡기를 요구한다며 “한번에 몇 천대를 요구하고 아주 많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설전날인 음력 30 일부터 시작하여 정월 2 일까지 긴급하게 직원을 소집하여 생산 재개에 들어갔다. 완더의료는 전국에 의료용 호흡기를 공급한 후, 현재는 또 중국의료용 호흡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중대한 역할로 도약했다. 현재 완더의료 해외 호흡기 주문량은 만대 이상이며, 주문은 6 월분까지 짝 차있다.

공신부(工信部) 데이터에 따르면 3 월 19 일부터 3 월 30 일까지 10 일동안, 중국은 이미 해외에 외과식 호흡기 1700 여대를 공급했고 올해이후 국내 총량의 절반에 달한다. 동시에 매일 대량의 국제 의향주문서가 협상중이며, 현재 이미 계약을 체결한 주문량이 약 2 만대다.

강력한 해외수요는 중국내 호흡기 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침투하게 만들었다. 완더의료는 2019 년 년도 보고서에서 이번 전염병 상황의 응급 구매가 기회가 되어 큰 범위의 고급 병원 고객을 개척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완더(迈瑞)브랜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전염병 하의 혼란함이 준 대가는 호흡기 산업도 마찬가지로 모면할 수 없었다. 의료용 호흡기는 높은 부가가치를 갖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눈에 새로운 ‘현물화폐’가 되었다.

“현재 아직도 매일 사오십명이 나와 위챗을 연결합니다. 이는 이미 상황이 다소 좋아진 것입니다.” 위에더쥘은 이번에 느낀 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상품을 사재기하여 높은 가격을 만들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업계의 비전문가입니다. 수면 호흡기가 어떻게 의료용을 대체하겠습니까?”

마스크와 진단키트가 유럽 국가에서 연속하여 전복된 후 호흡기도 외부에서는 우려하는 새로운 대상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상업기회도 눈앞에 있다. 이 특수 트랙이 짧은 시간내 적지 않은 ‘신인’을 유입했다. 치차차(企查查)전문 데이터에서 중국의 현재 호흡기 기업은 모두 599 개사다. 2020 년 2 월 1 일부터 4 월 13 일까지 중국내 77 개 호흡기 기업이 새로 증가했고 2019 년 동기간 대비 6 배가 증가했다.

외부에서 보기에 이번 전염병이 자극하는 중국내 의료용 호흡기 시장은 좋은 시기다. 위에더쥘 측은 신중하고 근심한다. 2016 년 가정용 호흡기 산업에 진입한 이후 위에더쥘은 자신이 속한 산업에 신중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전염병이 도리어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료용 호흡기는 비대중적이고 첨단영역이며 이익이 고정되고 있습니다. 경솔하게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염병 중 크게 도약한 완더의료(迈瑞医疗), 이안의료(谊安医疗), 위위에의료(鱼跃医疗) 모두 호흡기에서 시작한 회사가 아니다.

한 완더의료 내부 인사는 말했다. “호흡기는 우리들의 주제품이 아닙니다. 현재 주문이 폭증하여 압박도 아주 큼니다.” 다른 방역상품도 사용자의 습관을 배양하고 자극을 증가하기를 바란다. 의료용 호흡기 자체는 사용기한이 5년 이상에 달해 시장 증가 공간이 크지 않다. 위에더진은 이번 한차례의 수요 자극은 잠시일 것이며 미래 시장을 적자로 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내 사례로 전염병 폭발부터 3월 3일까지 공신부 중점 감독관리 기업은 후베이를 위해 (주로 우한) 비외과식 호흡기 약 1.4만대, 외과식 호흡기 2900여대를 제공했다. 전염병의 자극을 받아 월 공급량은 이미 기본적으로 2019년 전해 판매량을 커버했다.

전염병이 지난 후 생산라인 확장이 가져오는 적자도 현재 이러한 제조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우리들은 현재 내년 자금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금 수요와 현금 흐름 상황에 대해 예측 판단하는 것이다.” 의료용 호흡기의 핵심 부품 제조사 베이평과기는 이미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자신의 위치가 불리한 자리에 놓이길 원치 않는다. 전염병의 기회 때문에 우리는 운 좋게 수입산을 대체하고 중국내 호흡기 산업의 단점을 보충하며 관건이 되는 일보를 전진하였다. 이어서 기초를 충실히 다지고 국제시장에서 유럽 유명 브랜드 기업과 높고 낮음을 비교해야 한다.” 웨이씨명(魏希盟)은 말했다.

## 결어

만약 전염병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중국산 호흡기, 관련 부속기업이 언제 산업 주류를 걷게 될지 몰랐을 것이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호흡기 제조사건 부품 제조사건 낙후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냐는 최종적으로 제품 품질과 성능에 달려있다.

“중국내 시장이건 해외시장이건 제조사는 여전히 대량의 연구 개발을 투입해야 하고, 품질이 확실한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국산 브랜드 호흡기 제조사만이 어느정도 투자자가 올해 주목할 방향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염병은 결국 지나갈 것이고 일체는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위에더진(岳德俊)의 말이다.

## 2. 달마원 가상과 실제를 혼합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 개발 (봉황과기凤凰科技, 2020.4.22)

알리달마원(阿里达摩院)이 전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혼합식 시뮬레이션 테스트 플랫폼’을 발표했다. 이 플랫폼은 사이버와 현실을 결합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채택해 실제 도로 테스트 장면과 클라우드 트레이너의 인도를 받으며, 시뮬레이션 1회에 단지 30초만 걸리고, 시스템이 매일 가상 테스트할 수

있는 거리는 800 만 km 를 초과하며 대부분 자율주행 AI 모형 훈련으로 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다. 이 기술은 L5 스테이지를 향한 자율 주행 가속화를 촉진한다.

도로 테스트는 자동 운전의 핵심 과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자율 주행 자동차는 177 억 킬로미터의 테스트 데이터를 축적해야 자율 주행 인식, 의사 결정, 전체 링크 제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기존의 순수 가상 시뮬레이션 테스트 플랫폼은 자율 주행 도로 테스트 여정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장면에서 훈련 효율이 낮은 핵심적인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극단적 장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실제 도로 조건의 불확실성을 재현할 수 없으며, 시스템이 실제 도로의 돌발 상황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음을 자율 주행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달마원의 최초 자율 혼합식 시뮬레이션 테스트 플랫폼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 가상 고정 환경과 오프라인 실제 도로 조건의 불확실성 간의 격차를 이어준다. 기존의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의 무작위 개입을 시뮬레이션하기 어렵지만, 달마원의 플랫폼에서는 실제 드라이브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장면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작위적인 개입을 통해, 전후방 차량 가속·급회전·긴급 주차 등의 장면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고 자율 주행 차량의 장애물 회피 훈련의 난도를 증가시킨다.

극한 장면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에 대하여 이 플랫폼은 극한의 주행 테스트 장면 변수를 임의로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 도로 테스트에서는 극단적인 장면을 접수 관리하는데 1 개월이 소요될 수 있지만, 플랫폼은 비와 눈 날씨·야간 조명과 같은 악조건 등 특수 장면의 구성과 테스트를 30 초 이내에 완료할 수 있고, 매일 지원되는 장면 구성의 수는 수백만급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플랫폼이 반복적으로 극단적 장면의 재출현 난제를 규모화하여 해결했고, 이러한 주요 장면의 훈련 효율성을 수백만 배 더 높였으며, 자율 주행의 가속도를 L5 단계 로 향해 가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3. 3년 연속 하락하는 대륙의 자동차 제조사 비야디의 전략은 반도체

(신경보新京报, 2020.4.22)

2019 년 비야디(比亚迪)는 영업수익 약 1277.39 억 위안을 이뤘다. 이는 전년대비 1.78% 하락한 것이고 상장회사 주주의 순이익으로는 약 16.14 억 위안이 귀속되어 전년 대비 41.93% 하락했다. 상장사 주주의 비밀상적 손익을 차감한 후 귀속된 순이익은 2.31 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0.64 % 감소했다.

중국내 유명 차제조사로서 비록 줄곧 '장기적 관점에서 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철수는 신에너지 차량 경쟁 국면을 유리하게 개선시킬 것'이라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업에 가져오는 이윤 압박과 직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2020 년 비야디는 이 파국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신에너지 자동차 사업의 영향으로 비야디의 작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두 배로 감소했다. 비야디는 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사업을 포함해 전통 경유자동차 사업, 휴대폰 부품과 조립 사업, 2 차 충전지와 태양광 사업에 종사하며 적극적으로 도시 선로 교통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19 년 비야디의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1.78 % 감소했으며, 그 중 자동차와 관련 제품 사업의 매출은 약 63,266 백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76 % 감소했다. 휴대 전화 부품 및 조립 사업의 매출은 약 53,380 백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6.40 % 증가했다. 2차 충전식 배터리와 태양광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7.38 %

증가한 약 10506 백만 위안이다. 3 대 사업이 비야디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9.53 %, 41.79 %, 8.22 %를 차지하고 있다. 2019 년, 신에너지 차량 사업의 수입은 약 40145 백만 위안, 전년 대비 23.42 % 감소했고 이로 인해 비야디의 총 수익 비율은 31.43%로 떨어졌다.



사진 1) 출처: 신경보新京报

2019 년은 비야디가 처음으로 순이익이 전년보다 하락한 해가 아니며, 2017 년부터 시작했고 비야디의 매년 순이익은 모두 전년보다 약간씩 하강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신에너지 차량이 정책 조정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하락폭이 비교적 크고 비야디의 실적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 년 중국 GDP 는 전년대비 6.1%증가했고 1991 년이후 새로운 최저치로, 하반기에는 외부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악화되어, 삼사분기 중국 GDP 가 더 떨어져 6.0 %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30 년 동안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 년 전국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2572.1 만 대와 2576.9 만 대이며, 전년 대비 7.5 %, 8.2 % 감소한 것이다. 그 중 신에너지 차량 판매량은 보조금 축소와 일부 지역의 국가 6 대 표준의 조기 전환에 영향을 받아, 하반기에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연간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24.2 만대와 210.6 만대로 전년 대비 2.3 %, 4.0 % 감소했다.

비야디도 현저히 영향을 받았다. 2019 년 중국 신에너지 차량 시장은 역사상 보조금 하락폭이 최대인 한 해를 맞았다. 보조금 철회와 일부 지역의 국가 6 대 표준 사전 전환은 산업에 처음으로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전년 대비 하강하는데 관련있다. 비야디의 신에너지차 판매량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19 년 연간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3 분기와 4 분기 비순이익 공제액은 마이너스였으며, 2019 년 받은 정부 보조금은 약 14.84 억 위안으로 2018 년보다 거의 6 억 위안이 적어졌다.

신에너지차는 산업 개편을 맞이할 것이다. 비야디는 전쟁에 임할 것인가?

2003 년 자동차 사업에 진출한 비야디는 중국의 자체 자동차 브랜드의 선두 제조사로 성장했다. 비야디는 "글로벌 신에너지차 연구개발과 홍보의 리더이자 신에너지차 영역에서 강력한 기술 축적과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이며, 전세계적 신에너지 차량 분야에서 업계 선두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2020 년을 전망하면서 비야디는 코로나 19 전염병의 영향이 세계 경제 하강 위험을 증가시키고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이 신에너지차 개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함에 따라, 신에너지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발전 추세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다. 국내에서는 산업 구조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보조금이 추가 감소함에 따라 신에너지차가 산업 개편을 맞이하고 산업 구조의 최적화를 가속화하며 산업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야디는 어떻게 하려는가?

첫 번째는 "시장 경쟁력을 지닌 모델을 계속 출시"하는 것이다." 그룹의 신에너지차 제품 교체, 혁신 기술 적용과 신형 모델 출시로 인해 신에너지차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긴다.

두 번째는 시장의 교육과 확장이며, 대중 교통 분야에서 비야디는 국내외 도시 버스 시스템의 녹색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해, 신에너지차의 홍보 보급과 자신의 역량에 기여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 왔다.

또한 비야디는 전용 차량에서 영역 침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룹의 새로운 성장 지점을 만들었다.

코로나 19 전염병 상황에서 마스크 생산을 지원하고, 반도체 회사는 독립적으로 상장하고자 한다.

2020 년에 코로나 19 전염병의 공습은 수많은 회사의 리듬을 혼란에 빠트렸다.

비야디는 올 1 분기에 상장 회사 주주들의 순이익이 5 억 위안에서 1 억 5 천만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9.99 % -93.33 %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야디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20 년 1 사분기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염병 상황과 거시 경제 침체가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시장 수요에 미친 충격이 비교적 크며, 본 회사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전통 석유 연료 차량 측면에서 송 Pro(宋 Pro 편집자 주: 비야디 차량 모델의 하나)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료 차량 판매에 대한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며, 휴대폰 부품 및 조립 사업에서 회사는 적극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고객 협력을 심화하여 좋은 결과를 달성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했다. 태양광 사업 방면에서도 해외 시장이 성장하며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염병 상황에서 비야디도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했다.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1 월말, 후베이성에 현금 1,000 만 위안을 기부하고, 방역 전선에 있는 인원을 위해 1 백만 위안 상당의 방역보호 물자를 기부하는 동시에 비야디도 전염병 방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스크 생산, 소독제 생산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신속하게 연구 개발팀을 설립했으며 왕추안푸(王传福)를 책임자로 특별팀을 구성했다.



사진 2) 출처: 자동차의 집(汽车之家), 송(宋)Pro 모델 차량

"비야디가 생산하는 마스크는 하루에 30 만에서 50 만개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에 5-10 대의 새로운 마스크 기계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500 만 장 마스크를 생산하는 능력에 도달했고, 이는 이전의 중국산 생산능력의 1/4 에 해당합니다. 비야디는 전세계 최대 마스크 제조 공장이 되었습니다." 비야디측에서 이렇게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비야디는 올해 소홀히 볼 수 없는 또 다른 조치가 있었다. 즉, 비야디는 최근 자회사 간의 주식 양도, 사업 양도를 통해 자회사인 선전 비야디 웨이전자 유한공사(深圳比亚迪微电子有限公司, 약칭 '비야디 웨이전자 比亚迪微电子', 현재 이미 '비야디 반도체 유한공사 比亚迪半导体有限公司'로 명칭변경)를 내부적으로 재조직했다. 구조 조정 후 비야디 웨이전자(比亚迪微电子)는 Ningbo 비야디 반도체 유한공사 (宁波比亚迪半导体有限公司)가 보유한 100% 지분과 Guangdong 비야디 절능 과기 유한공사 (广东比亚迪节能科技有限公司)으로부터 100% 지분을 양도받고, Huizhou 비야디 실업 유한공사 (惠州比亚迪实业有限公司) 지능 광전, LED 광원과 LED 응용 관련 사업을 인수했다.

4 월 14 일 비야디 발표는 비야디 반도체를 자본 증대 주주 확대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입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비야디 반도체는 시장 수요 지향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외부 시장 주문을 확대하고, 회사 발전을 가속화하며 중국 반도체 산업이 굴기할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 동시에 비야디 반도체는 자본 시장 금융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하고 적절한 시점에 적극적으로 독립 상장하도록 할 것이다. 독립적인 자본 시장 플랫폼과 시장화에 맞춘 보상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회사의 활력을 자극하고 비즈니스를 부단히 강화하도록 도울 것이다." 비야디가 말했다.

### 4. 순펑택배, 코로나 전선에서 수입은 늘었으나 이익은 늘지 않았다

(36kr, 2020.4.26)

업무량은 영업수익의 대폭 상승을 가져왔지만 순펑의 일분기 실적은 훌륭한 가운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SF Holdings (SZ002352)는 최근 2020 년 1 분기 실적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으며, 1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9.59% 증가한 335.41 억 위안을 달성했으며, 상장 기업의 주주 순이익은 9.07 억 위안, 전년 대비 28.16% 감소했다.

특급 전자 상거래 부품 제품과 전염병 동안의 논스톱 근무로 인해 매출 규모가 더 늘어나 높은 성장을 달성했지만, 택배 가격 전쟁이 더욱 격렬해져 시간 효율로 "이익을 얻는"SF Express 는 자기 혼자만 생각할 수 없고, 순이익은 30%로 하락했다.

2020 년 이후 택배 시장에서 SF Express 의 점유율은 "도약과 맹진"으로 형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 2019 년 5 월에 출시된 "전자 상거래 특별 우대가"제품에 의해 획득했다. SF 의 사업 규모는 6 월 이후 크게 반등했고, 8 월에는 SF 의 사업 규모 성장률이 처음으로 30 %를 넘어섰으며, 택배 산업이 뛰어나게 빛을 낸 4 분기에는 SF 의 월간 성장률이 전년 대비 각각 48.5 %, 47.9 %, 57.8 %에 도달했다.

2017 년 시장 점유율이 7.6 %로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 3 년간 SF Express 의 택배 시장에서의 행동은 모두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반면 업계 만형격인 중통(中通)은 우세를 계속 확장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이미 20 % 가까이 도달했다.

### 快递公司市场份额变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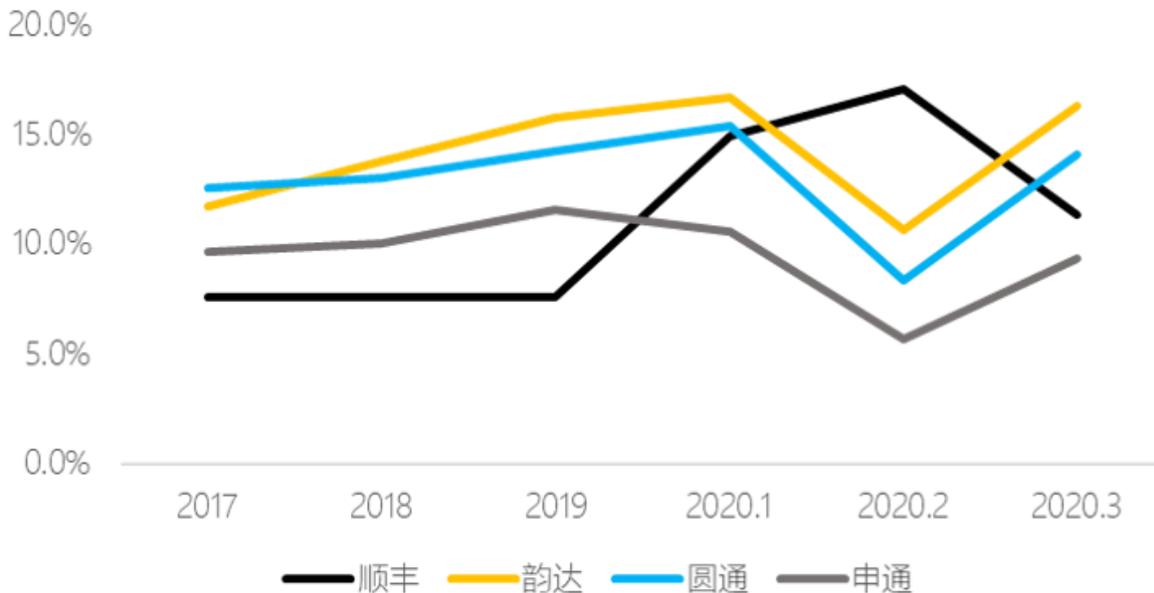


표 1) 출처: 36kr, SF Holdings 顺丰控股, Yunda 韵达股份, Yuantong Express 圆通速递, Shentong Express 申通快递 (2020 년 4 월 26 일까지)

1 분기에 '3 통 1 달(三通一达: 圆通速递, 申通速递, 中通速递, 韵达快递)'과 바이시(百世快递) 가 업무를 중단하고 전염병의 영향으로 SF Express 의 1 분기 택배시장 점유율은 작년 같은 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13.7 %에 도달했다. 그러나 연맹 택배회사가 속속 업무를 재개함에 따라 SF은 2 분기에 업무량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중진회사(中金公司)는 SF 의 1 분기 성과를 평가할 때 예상보다 약간 낮았다고 밝혔다. SF 의 1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0 % 증가했고, 주로 업무량이 전년 대비 77 %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공정가액 변동 확인 수익과 정부 보조금 등 비일상적 요소를 공제한 후, 공제된 비 순이익은 8.32 억 위안에 달해 예상보다 약간 낮았다.

이외에도 중진(中金)은 올해 SF Express 가 "달콤함"을 맛본 후에도 전자 상거래 사업을 지속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윤 성장률은 업무량 성장률보다 느릴 것이다.

중신증권(中信证券)측은 악성부채와 세금의 증가가 회사의 실적을 어느 정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전염병 기간 중 비용이 상승한 탓에 전자 상거래 특혜로 채워진 생산력은 소모되었고 이후 신규 비용의 압력을 받았다. 중신증권은 총 이익률이 2 % 포인트 감소했지만 전체 총 이익 증가는 여전히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보여준다고 여긴다.

이외에도 이 은행은 Ruixing Coffee 가 SF 의 고객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 재무 보고 조작의 영향을 받아 SF Express 는 신중함을 원칙으로 비교적 많은 악성부채 계제를 준비했다.

티엔핑증권(天风证券)은 SF Express 의 1 분기에 대해 "소득은 증가했지만 이익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며, 업무 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1 분기에 SF Express 의 스피드 운송 업무의 단일 표 수입이 23.73 위안/표에서 18.58 위안/표로 감소했으며, 저가 상품 전자상거래 특혜 품목의 수량 증가는 SF 의 종합 단가가 하락한 주된 원인이었다. 또한 국가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회 보험 부분 부담률 감면으로 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돕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중신(中信) 과 티엔핑(天风)은 고르게 SF Express 의 2020 년 성과에 대해 '낙관적'견해를 표명했다. 올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물류 부동산 기금 등의 요소를 주목하도록 건의했다. 중진(中金)의 SF Express 에 대한 예측은 약간 보수적이며 2020 년이 SF Express 에게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SF Express 는 '중성 등급'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 ISSUE 및 시장동향

### 1. 투자자는 올해 어느 방향을 주목하는가? — 36kr 제공

**소비 업그레이드, 도시화 배경아래 세가지 키워드: 도시급 과학기술, 효율, 데이터화**

현재 활약하고 있는 약 50 인의 투자자의 관점을 종합하여 분석 정리했다. 세분화된 방향으로 통계를 내되 빈도가 높은 것은 총합에 더하여 최후 결과가 설득력을 갖도록 하였다.

이 방법에 따라 세분 방향은 3 개 등급으로 구별하였고 투자자들의 지적이 가장 많았던 것부터 소개하겠다.

#### 신환경하의 새로운 구동력

먼저 구동력에 관해 말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 말하겠다.

2019 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열띤 화제는 모델식 투자에서 To B 투자 또는 과학기술류 투자로의 전환이다. 인상깊은 것이 작년 상반기에 참여한 적지 않은 투자활동 모두 이 화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심지어 많은 기초 재료 모두 재사용할 수 있어 많은 준비 시간을 줄여준다.

국내 VC 산업의 현존 결과를 보면 잘 알려진 성공 사례는 여전히 소위 모델식 투자 작품이며 기술에 투자한 몇 가지 유니콘은 여전히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도 업계 내 적지 않은 정상급 기관이 여전히 소비에 대해 매우 좋게 보아 모델식 방향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원래 들었던 두 단어는 기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추세다. 하나는 소비 업그레이드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화로 최대 구동역량을 지닌 대표적인 것이다.

소비 업그레이드 개념하에서 2019 년에 비교적 인기있는 것은 각종 '침강'이다. 그러나 실제 소비 바꾸니는 상상보다 훨씬 풍부하며, 세대 교체와 수입 상승의 구동하에 신규 브랜드, 부동산, 교육, 의료, 양로 등을 포함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조급의 큰 방향이다. 업계 내 큰 손들은 입가에 항상 시장을 달고 산다. 본문은 이것을 중점으로 삼지 않는다.

#### 도시급 과학기술

다시 도시화를 볼 때 공식 데이터에서 중국의 도시화율은 현재 60%로 개발 지구는 이미 70%를 넘어섰다. 과감하게 농촌에서 도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명확한 지수는 부동산 가격이다. 도시에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생산량과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은 외부 구동력이 약화되었고 다음 단계는 도시 내부 운영을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양지엔장(梁建章)도 <인구 혁신력>에서 일찍이 중국은 미래에 적어도 몇 개의 슈퍼 도시가 출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슈퍼 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장악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과학기술과 스마트화 수단과 떨어질 수 없다. 도시는 본래 인류가 과학기술 방면에서 집대성하여 창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전염병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상상만큼 총명하지 않으며 심지어 둔하다는 것을 알게 했다. 몇 년 전 왕지엔(王坚)박사도 이미 항저우에서 스마트도시의 변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조물주와 같은 시각을 열어보려 시도했고, 이 가운데 필연적으로 큰 기회를 배양했다.

우리는 잠시 스마트도시의 과학기술을 도시급 과학기술로 명명해보자, 그것은 아래 열거하는 도시의 교통, 오염, 질병 예측과 공공건강, 범죄 등의 문제를 해결을 포함할 것이다.

- 유동/유통 시스템: 교통, 자율주행, 차연결망, 물류 등
- 비유동/비유통 시스템: 시정, 보안
- 스마트시스템: 데이터플랫폼, 물류연결망 등.

펑트란(彭特兰)이 <스마트사회>에서 언급한, 우리들은 도시가 '하나의 데이터로 구동되는, 동적인 형태인, 반응이 민첩한 조직'이어서 우리들의 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마스크를 차고 일하는 나날 후 이러한 바람은 더욱 절실해졌다.

## 효율

앞서 제기한 화제로 돌아가서, 모델식 투자에서 과학기술형 투자까지 이 문제의 배후에 반영하는 문제는 사실 더욱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거시 경제든, 중간 시각의 산업 발전 단계든, 미시적 시각의 회사로 오든 모두 역사상 특수한 일정 시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며 바로 중국 경제와 산업이 고속 발전한 30 년 후 비교적 명확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환기에는 수량, 비용, 상응하는 조방식 개발 모델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존재해온 노동력 배당금을 잃게 되며, 우리는 맹목적인 스타트업 열풍이 다 되었음을 직면하고, 그저 세부 과학기술 과정 속에서 다시 기회를 찾는다. 갖가지 징후는 모두 분명하며 일찍이 정밍(曾鸣) 교수의 말 따르면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사라졌다"고 했으며, 효율이라는 이 두 글자는 미래에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첫번째 나아가는 방향은 거의 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나는 효율을 산업 효율과 기업 효율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물론 기업 효율 향상도 산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산업 효율에 대해 보다 직관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는 산업 인터넷을 수단으로 하여 산업 효율을 통합과 개선한다. 적지 않은 산업 인터넷 프로젝트의 착안점 모두 공급망과 산업 협업의 관점에서 산업을 통하게 하여 시작과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단이 더욱 다원화되었다. 모든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필연적으로 관리를 심화시키는 관련 수단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컨설팅 회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일련의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능숙하지만 최종 실행은 여전히 도구와 프로세스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다양한 관리 도구를 배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전염병 기간 협업 사무실, 회의 시스템이 모두 맹렬히 발전했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또한 국내 기업의 관리 수준이 비교적 미숙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 존재하는 큰 시장 공백에서 누가 파이를 차지할 것인가? 상술한 도구는 기본적으로 거두 기업들이 쟁탈전을 벌이는 영역이고, 이 점은 모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스타트업 기업에게 이것의 세분 영역에서 기회가 필요하고 그러면 기업급 소프트웨어와 SaaS 등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 현재까지 중국내에서 SaaS 에 대한 이해는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HR 등 SaaS 의 중요트랙상에서 투자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마찬가지로 효율 이 두 글자에 수반하여 RPA, Low-code, MarTech 등 몇 가지 개념이 과거에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이 영역에 주목하여 투자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여전히 모두가 함께 심도 있게 토론해 보아야할 몇 가지 화제가 있다.

- 오픈 소스와 To D 모델의 탐색, 나아가 건강한 생태계 시스템의 조성
- 산업 표준화와 맞춤화 사이의 균형
- 단일 상품에서 상품 매트릭스로의 진화 경로
- 부분적 상품이 도구의 속성에서 착안해 거래될 가능성
- To B 상품의 To C 화

생산제조기업으로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술한 프로그램 도구외에, 생산 과정에 쓰이는 하드웨어 도구의 효율을 높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산업 기술자가 줄어드는 추세하에 로봇을 포함한 업무내의 자동화, 스마트화 수단은 필연적으로 더 광대한 응용 잠재력을 지닌다.

다시 한 층 더 내려가면, 기업의 원소는 한 명 한 명의 사람이며, 사람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볼 때 일부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글은 "Bear(熊掌记)"라고 불리는 도구로 씌어졌다. 최근 글을 많이 써서 매번 사용할 때마다 매번 감동을 느낀다. 원인을 연구해보면 대략 이 두고는 매우 우아한 글쓰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학 및 형식 제어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는 나에게 큰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나는 이 도구에 매년 약 200 위안을 지불하지만 사실상 거의 단지 문장을 쓰는 데에만 사용될 뿐이다. 그러나 이 작은 측면에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도구가 개체에 주는 기능이 들어있다. 전제는 개체도 마찬가지로 효율을 추구하고, 개체도 지불 능력을 높일 의사가 있고, 클라우드가 해적판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 디지털화

또 하나 거의 효율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디지털화다. 물론 디지털화 자체와 효율은 교집합이 있고 그 목적은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디지털화가 광범위하게 제창된 원인은 이것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매우 큰 바구니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까?

문자 의미에서 보자면 필연적으로 디지털을 보급하는 것이다. 각종 산업의 디지털화 추세 속에서 대량의 데이터가 필연적으로 생성되고, 데이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기술과 응용에 바로 기회가 있다. 예를 들면 베이스 프로그램의 데이터 씹크, 각종 데이터 처리 기술과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등이다.

기업이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잘 하려면, 수집·보관·소비·운송·유지 등은 물론이고 담고 운반할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한 층 더 확장해가면, 이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된 능력도 클라우드, 알고리즘, 심지어 칩을 포함해 거대한 요구를 생성하게 된다.

상술한 3 개 측면은 사실 작은 데서 큰 데서 가는 과정이며 어떤 특정 과정에서 포함하기도 한다. 몇 년 전 빅데이터와 AI 가 마찬가지로 인기있는 투자 방향이었지만 최근 이 단어를 듣는 일은 많지 않다. 당시 협의의 빅데이터 개념은 데이터 발굴과 예측 등과 같은, 데이터 처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을 지칭했고, 현재 이러한 프로젝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빅데이터와 AI 모두 이미 점차 내재화되기 시작했고, 게다가 양자의 관계는 거의 밀접하여 분리할 수 있다.

## 2.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화 — 후씨우왕(虎嗅网) 제공



사진 1)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얼마전 전염병 와중에 이득을 본 몇 안되는 회사를 분석한 결과 스트리밍의 거두 넷플릭스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본 회사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전지구 범위에서 자택에 격리된 상태로 있고 집에서 사무를 보게 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역시 여가 시간에 할 거리를 찾고 원래 이미 미디어 스트리밍이 주류 엔터테인먼트 수단이 되어,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기위한 거의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 이것은 넷플릭스가 1 분기에 스스로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의외의' 재무 수치를 보고하게 하였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4 월 21 일, 넷플릭스는 3 월 31 일까지의 2020 년 회계 연도 1 분기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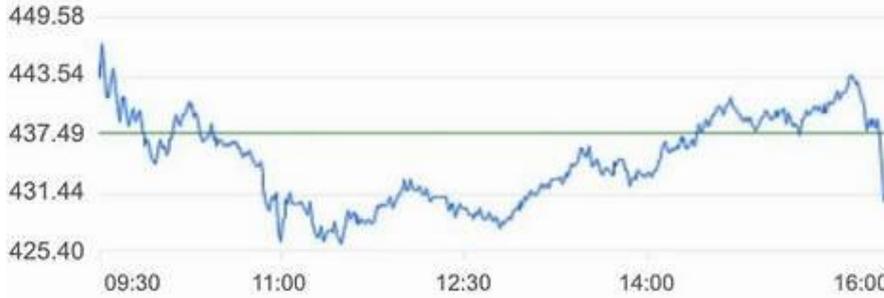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1 분기 매출은 57.68 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21 억 달러로 27.6 % 증가했으며, 전세계 스트리밍 미디어 가입자는 1.8286 억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860 억 명에서 22.8 % 증가했다. 순증가 1577 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순증가 960 만 명보다 많다. 순이익은 7.09 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44 억 달러에서 106.1 % 증가했으며, 현금 현금 흐름은 1.62 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는 -4.60 억 달러였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화요일 개장시 444.77 달러였다. 화요일 증가 기준으로 넷플릭스의 주가는 3.66 달러 하락해 433.83 달러로 마감했고 감소폭은 0.84 %였으며 마감시 시가는 1903 억이었다. 상대적으로 직원을 대량 해고했다는 소식이 들린 Disney 의 시장 가치는 1900 억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넷플릭스의 시장 가치는 두 번째로 디즈니를 능가했다.

**433.83 美元** ↓ -3.66 (-0.84%)

2020/04/21 16:00:00 已收盘 (美东时间)

盘前 432.00 -1.83 -0.42%



分时 5日 1月 1年

**Netflix**

道琼斯:23018.88(-2.67%)

纳斯达克:8263.23(-3.48%)

今开 444.77  
 昨收 437.49  
 最高 447.00  
 最低 425.60  
 成交量 2317.76万  
 市盈率 85.48  
 每股收益 5.075

总市值 1907.90亿

**100.54 美元** ↓ -1.72 (-1.68%)

2020/04/21 16:00:00 已收盘 (美东时间)

盘前 102.01 +1.47 +1.46%



分时 5日 1月 1年

**迪士尼**

道琼斯:23018.88(-2.67%)

纳斯达克:8263.23(-3.48%)

今开 100.01  
 昨收 102.26  
 最高 101.51  
 最低 99.13  
 成交量 1610.14万  
 市盈率 16.92  
 每股收益 5.94

总市值 1815.19亿

표 1)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주가

디즈니가 중시한 Disney +는 비록 좋은 결과를 자주 얻었지만, 이 갑작스러운 전투 '전염병'에서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전염병의 구름 아래 예상을 초월한 성장, 넷플릭스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비록 이전에 넷플릭스의 경영진은 1 분기의 사용자 증가는 매우 놀라운 것을 암시했지만, 최근의 예측은 넷플릭스의 1 분기 신규 사용자가 1000 만~1200 만 사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가장 대담한 분석가가 지난 분기에 내놓은 성장 예측은 신규 사용자가 890 만명에 불과했다. 결국, 이미 1.6 억의 사용자를 보유한 스트리밍 미디어 회사로 말하자면, 북미 지역에서 심지어 이미 마이너스 성장 단계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예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것만도 이미 성공인 셈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전염병이라는 '블랙스완'의 출현은 일체의 '의외'를 모두 이와 같이 순리에 맞는 것으로 보이게 했다. 1 분기에는 1577 만명의 가입자가 신규 추가되어 넷플릭스의 수년간 단일 분기 최고 성장 기록을 세웠다. 재무보고발표 후 화상회의에서 넷플릭스의 CEO Reed Hastings 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은 작은 공헌을 했습니다. 모두가 격리된 생활이 그렇게 견디기 힘들지 않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노력을 기울여 좋은 자신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며 그들에게 자막을

입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나 즐거운 시기나 관계없이 사람들은 오락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지만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최근 몇 개 분기에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른다면, 2020년 1 분기에 기본적으로 전 2개 분기 전체의 성장 목표를 달성했다. 원래 넷플릭스는 제 1 분기에 700만 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성장은 이미 예상의 두 배 이상을 초과했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으로 보면, 넷플릭스는 북미 지역에서 마침내 또다시 오래간만에 백만급 증가를 맞이했으며, 제 1 분기 순증가는 231만 명이다. 총 가입자 수는 699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작년 북미지역의 넷플릭스 총 가입자 증가 총수는 290만 명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2 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전염병 영향을 받는 지역이 됨에 따라, 각 주는 연이어 재택 격리 정책을 내놓고 있고 이는 과거 몇 년간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던 시청자들도 마침내 저항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넷플릭스에 대한 기대가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가입자가 새로 360만 명 증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3만 명을 상회했다. 동시에 지난 9개 분기 이후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신규 사용자가 300만 명을 넘어 섰으며 총 사용자 수는 1984만 명에 이르렀다.

실제로, 제 1 분기의 콘텐츠 내용으로 보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기 콘텐츠는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제작한 일련의 시리즈물, '이호조선(李尸朝鮮)' 시즌 2, '사랑의 강제 착륙' '이태원' 등은 아시아 태평양 관객을 끌어들이는 '킬러'가 되었다.



사진 2)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이호조선 시즌 2>포스터

구독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놀라움과 비교할 때 재무 보고서의 또다른 지표가 가져온 정보는 분명히 더 긍정적이다. 넷플릭스가 수년간 외부에서 책망받던 현금흐름이 마침내 2020 회계 연도 제 1 분기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번 분기에 운영 활동을 위해 넷플릭스가 제공한 순현금은 2.6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80억 달러였다. 자유 현금흐름이 1.62억 달러가 되었고, 작년 동기에는 -4.60억 달러였다. 사실상 이것도 9개 분기 이후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현금흐름을 실현한 것이다.

재무 보고서 수치를 보면 넷플릭스는 수년 동안 '흑자'였지만 그 중 많은 부분이 회계 표준을 유연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2019년 넷플릭스의 순이익은 18.67억 달러였지만 최후의 현금 흐름은 -32.87억 달러였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낙관적인 월스트리트 투자 기관조차도 넷플릭스가 채무로 돈을

태워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 이 비즈니스 모델르 좋게 본 월스트리트 투자 기관조차도 마음속 의혹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넷플릭스의 최대 비용은 거대한 콘텐츠 저장소로, 2019 년에 콘텐츠 비용을 92 억 달러 사용했다. 이 현금흐름표에 보이는 현금 지출은 약 146 억 달러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하는 금액이 증가했다. 더구나 '프랜즈'를 1 억 달러를 들여 1 년 연장한 것과 같이 가능성 있는 일부 인기 콘텐츠 판권을 고가로 갱신했다. 상술한 양자를 나뉠셈하면, 즉 현금지출과 콘텐츠 상각의 비율이 1.59 로 이 비율이 클수록 현금 지출과 콘텐츠 상각 사이의 간격이 더 커지며, 이는 종종 논평에서 돈을 태우는 속도로 제기된다. 숫자가 클수록 돈을 태우는 속도도 더 빠르다. 2015 년부터 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2018 년에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1.6 에 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4 분기 투자자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넷플릭스는 현금 흐름이 2020 년에 마이너스 25 억 달러로 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최근 투자자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 수치는 마이너스 10 억 혹은 그 이하로 변경되었다.

지난해 4 분기 재무 보고 전화회의 석상에서 넷플릭스의 수석 재무관인 Spene Neumann 은 투자자들에게 "2020 년내에 콘텐츠 상각이 다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금 지출의 증가는 줄어들 것이므로 우리의 현금 지출과 상각 사이의 비율은 어느정도 하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넷플릭스는 돈을 태우는 속도를 완화시켜, 보다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획득할 것이다.



사진 3)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넷플릭스의 최고 재무 책임자 Spene Neumann

따라서 넷플릭스가 이윤과 현금 흐름의 표현에서 완전히 조정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이전에는 부채 할부 상환은 작고, 지출은 큰 상태에서 이윤은 있지만 현금흐름은 마이너스였다. 만약 넷플릭스가 앞으로 콘텐츠 생산을 줄이고, 몇 년간의 큰 지출의 부채 할부 상환을 연장하고, 지출이 작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기록되기 쉽지만 이윤은 적자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적당한 콘텐츠 제작을 유지하지만 사용자 기반이 크고 안정적이 되도록 하면, 해당 년도의 부채 할부 상환을 커버할 수 있도록 수입을 달성할 수 있다. 흑자를 달성하는 동시에 플러스인 현금 흐름을 실현할 수 있다. 분명히 넷플릭스는 현재 이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도 제 1 분기 데이터가 아주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Reed Hastings 는 말했다. "세계는 믿기어려운 비극을 겪고 있으며, 우리는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이어서 모두가 천천히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제 2 분기 사용자 증가는 감소해 약 750 만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넷플릭스는 비록 2020 년의 콘텐츠가 이미 전부 준비되었지만 현재의 중단이 2021 년 일정의 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Warner Media 는 어제 HBO MAX 가 5 월 27 일에 출시될 예정이며 7 월 15 일 시장은 NBC Universal 산하의 Peacock 을 맞을 것이고 이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디즈니의 시장 가치는 넷플릭스에 추월되었다. 압박은 모두 Disney +에 가해지고 있다.

저울의 다른 끝에서 디즈니는 거대한 실물 프로젝트와 오프라인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둔 엔터테인먼트 거인으로서 코로나 19 전염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4 월 15 일, 넷플릭스의 시장 가치는 1873 억 달러에 이르렀고, 그날 Disney 의 시장 가치는 1866 억 달러였다. 넷플릭스는 다시 한 번 디즈니를 능가했지만 이번에는 단지 하루만 지속되었다. 넷플릭스가 제 1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한 날, 넷플릭스는 다시 한 번 디즈니를 역전하였으며 이번에 양자의 시장 가치 간격이 100 억 달러에 육박했다.

지난 번 디즈니의 시장 가치가 처음으로 스트리밍 미디어의 거두 넷플릭스에게 추월당한것은 2018 년 5 월이었고, 이는 넷플릭스를 잠시 "전세계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회사"로 만들었다. 언급할 만한 것이 2018 년 말 Disney 가 스트리밍 미디어 부문 사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1 년 후 Disney +를 출시했다.



사진 4)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Disney+ 화면

두 회사의 시장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단지 상징적 의미를 가질뿐이다. 비즈니스 구조나 발전 과정에 관계없이 20 년 된 넷플릭스와 '100 년 브랜드' 디즈니는 아주 크게 구별되며 이는 양자의 심원한 시장 수익률에도 반영된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의 주가 변동은 여전히 두 회사, 현재 상황에 대한 두

회사의 서로 다른 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디즈니로서는 현재의 위기가 회사의 발전을 점점 더 곤경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전염병기간 동안 디즈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뉴스는 아마도 유일하게 스트리밍 플랫폼인 Disney +만 남아있을 것이다.

4 월 9 일, Disney 는 Disney + 가입자 수가 5 천만명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두 달 전 이 수치는 2860 만이었다. 그 사용자 수의 대폭 증가는 전염병의 요소외에도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서비스가 시작한 것에 기인한다.

전 세계의 중요한 영화 시장은 다른 전통 스튜디오와 같이 극장을 폐쇄했으므로 Disney 는 어쩔 수 없이 앞서 극장 발행을 종료하거나 과거 디지털 판권 발행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이또한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Rise of Skywalker> <겨울왕국 2><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모두 연말에 Disney +에서 먼저 배치되었다.

다른 관점에서, 디지털 발행을 먼저 하는 것은 사실 마지막 수단이다. 실제로 Disney 의 거대한 콘텐츠 저장고와 비교할 때 Disney +의 원본 콘텐츠 업데이트 횟수와 속도는 분명히 늘어났으며, 출시 이후 반년 동안 Disney +의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는 도리어 스타워즈 시리즈 <만달로리안 Mandalorian>뿐이었다. 소셜 미디어이든 타사 통계 기관이든 관계없이 Disney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다른 토론을 보기 어렵다.

Disney +에서 공개될 다음 주요 콘텐츠는 여전히 '만달로리안(Mandalorian)'의 비하인드 다큐멘터리이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중단되어 Disney + 플랫폼의 세 편의 새로운 드라마 온라인 발행도 영향을 받는다.



사진 5) 출처: 후쑤우왕(虎嗅网), <만달로리안 (제 1 분기)>

ESPN +, Hulu, Disney + 3 개의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Disney 산하의 콘텐츠 발행을 어떻게 진일보하여 통합하고 협의 조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Disney 의 최우선 과제다.

Disney 로 말하자면 실물 엔터테인먼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자원의 추가 통합이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한 목표다. 현재 추세가 긍정적인 Disney +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출시 1 주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진다. 일부 미국 사용자는 Verizon 이 제공하는 1 년 무료 가입 기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짜족'사용자를 어떻게 남아있게 더 심해진 경쟁 속에서 새로운 사용자를 유치하느냐는 여전히 앞으로 Disney +가 직면할 난제다.

전염병이 없더라도 디지털화와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는 향후 10년 동안 엔터테인먼트 거인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전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넷플릭스 CEO Hastings 는 말했다. "미래 5년 후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큰 추세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 3. 십년 된 아이치이(爱奇艺), 돈 벌 수 있을까 — 후씨우왕(虎嗅网) 제공



사진 1)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올해 아이치이(爱奇艺)는 만 열 살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생일을 치를 기분이 아니다.

반 개월 전, 공매도 기구 Wolfpack 은 '중국판 넷플릭스? Luckin 에게 행운이 있기를'이란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하여 연속 연간 손실을 내고 있는 아이치이(爱奇艺)에게 한 차례 충격을 가했다.

영업수익에서 DAU, 사용자수에 이르기까지 아이치이는 교대로 질의를 받았으며, 여기에는 바이두의 뒷배경을 지고, '중국판 넷플릭스'라는 타이틀을 받으며 좋은 브랜드의 작은 거인으로 장악하여, 2018년 3월 미국 나스닥에 상륙한 이후 빛을 발하는 시기를 맞은 적이 없었다.

끊임없는 콘텐츠 비용의 증가, 쇼트클립의 충격, 이윤을 회수하지 못하는 신 비즈니스 도전...긴 영상 전쟁 중에서 돈을 태우고 있는 아이치이는 이윤을 보지 못하고 연속 연간 적자 중이며 끊임없이 자본 시장의 인내심을 소모하고 있다.

손실 100억 초과, 아이치이는 어찌 된 것일까.

아이치이가 발표한 2019년 제 4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에 아이치이 영업수익은 290억 위안, 전년대비 16%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수익의 배후에는 도리어 순손실이 103억위안으로 거대한 적자가 있었다. 2018년의 91억 위안과 비교하여 전년 대비 13.4%증가했다.

그러나 3대 영상 회사 중 다른 두 경쟁사(텐센트 영상 腾讯视频, 요우쿠 영상 优酷视频)의 손실 수치는 양사를 합쳐도 아이치이보다 적다. 텐센트는 2019년 재무보고에서 영상 사업의 한 해 영업손실액은 30억 위안 이하로 줄었다. 알리바바의 2020년 회계연도 3분기 재무 보고에 따르면 요우쿠를 포함해 알리 영상사업 등 업계 알리 빅엔터테인먼트 영역은 조정을 거쳐 EBITA 손실액이 32.9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5%가 줄어들었다.



사진 2)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그러나 왜 아이치이의 재정 적자는 도리어 점차 커지고 있을까?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아이치이의 높은 콘텐츠 비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매판권+자체 제작 콘텐츠 노선을 통해, 아이치이는 독자 고유한 성채를 구축했고, 여기에도 아이치이 회원이 플랫폼에 몰려드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재무보고서에서 2019년 아이치이 제4분기 회원서비스 수입은 인민폐 39억 위안(약 5.546억 달러)이었고, 전년 동기간 대비 21%증가했으며, 한 해 회원 서비스 영업수익은 144억 위안이다. 2019년 6월 아이치이는 대외적으로 의기양양하게 유료 회원이 천역을 돌파했음을 선포했다. 이것은 광고이외 아이치이의 주요 수입 증가 포인트다.

앞친데 뒷친 격으로, 최근 몇 년간 광고 사업에서 전체 광고 시장의 침체로 아이치이의 광고 수입도 손실을 메꿀 구명뱃짚이 되지 않았다. 재무보고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Q2부터 2019년 Q4에 이르도록 아이치이 광고 수입 증가는 전년 대비 각각 45%, -4%, 9%, 0.4%, -15.9%, -13.7%, -14.5%로 극도로 불안정하며 하락 상태에 놓여있다.

한 편으로 끊임없이 영업수익 루트가 축소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리어 콘텐츠 비용에 거액이 투입되었다. 콘텐츠 투입에서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중국내 영상 사이트에서 이미 과거 시제가 된 LeTV(乐视)외에 거의 아이치이의 적수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

공개된 재무보고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2018년 아이치이 콘텐츠 비용은 각각 36.9억, 75.4억, 126.2억, 211억이다. 3년간 영업수익은 370%증가했고 콘텐츠 비용은 471%증가했다. 2019년 아이치이 영업 비용은 303억위안으로 이중 콘텐츠 비용이 222억 위안이며, 2018년의 211억 위안에서 11억 위안 증가했다. 이 또한 아이치이가 222억 위안을 판권구매와 자체 제작 콘텐츠에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9를 벌어 10을 적자보는 리듬 주기다.



사진 3)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공매도 보고서에서 콘텐츠 구매 부문에 종사하던 전 아이치이 직원에 따르면 비독점 수권은 매 회 1000-5000 위안이고,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매회 최고 2만 위안이 되기도 한다. <헌터><만약 돌아오면> 등 영화작품의 방영권을 구매하기 위해 아이치이가 내민 인터넷 방영권 가격은 4.58억 위안이며 상하이원광(上海文广)은 TV 방영권에 단지 1.8억 위안을 썼을 뿐이다. 아이치이가 지불한 가격은 2.78억 위안이나 높다.

콘텐츠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아이치이의 성장 질곡이 되었다. 발전 과정에서 아이치이도 비즈니스 영역을 부단히 확장하여 유행하는 개념, 인기있는 새로운 입구는 기본적으로 모두 섭렵하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시장에서 서기에는 손뼉을 정도로 아주 적은 수치다.

### 신사업 또한 거대 손실 국면을 전환할 수 없다.

아이치이 사업 영역을 확장한지 오래되지 않아 라이브 방송이 흥기할 때 2016년 아이치이도 라이브방송 상품인 치쇼생방송(奇秀直播)을 출시했지만 기본적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도인, 콰이쇼우 등 쇼트클립 플랫폼이 큰 인기를 끌자 아이치이도 이 영역에서 도전을 시도하여 2018년부터 아이치이는 관련 상품으로 장빙(姜饼), 츠징(吃鲸), 나이도(纳豆) 등 쇼트클립 상품을 내놓았으나 모두 충분한 관심을 끌지 못했다.

2019 년 말, 아이치이는 쇼트클립에서 재도전하여 젊은 트렌드의 쇼트클립 '황배이(晃呗)'를 조용히 출시했다. 업로드 당일 필자도 이 상품을 사용했는데 '횡축 종축 모두 보기 좋다'는 화면스크린 언어가 제품 기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었다. 스크린을 뒤집어 영상의 가로 세로축을 전환할 수 있다.

당시 제품을 체험할 때 필자는 플랫폼에 입주한 비공식 계정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아주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환할 수 있는 콘텐츠와 전환할 수 없는 혼잡함 사이에서 현재 이 제품도 조기에 대중의 시야에서 퇴출되었다.



사진 4)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황배이(晃呗) 제품 화면

**다음 성장극: 중국의 'Youtube'가 되려면?**

2 월 28 일 재무보고 전화회의에서 공위(龚宇 편집자 주: 아이치이 창립자)는 회사가 '수이크(随刻)'라 명명한 YouTube 와 유사한 모델을 연구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있다고 했다.

수닝은 '수이크(随刻)'는 주로 두 종류의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하나는 MCN 또는 개인이 생산한 PUGC 콘텐츠이고 광고비 배분과 사용자 지불 방식을 통해 콘텐츠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아이치이의 긴 영상 콘텐츠가 '수이크(随刻)'에서 분할 배포되면 아이치이 콘텐츠 비용을 부분 할부판매할 수 있고 더 많은 화폐화 기능을 획득할 수 있다.

4월 2일 '아이치이 수이크(随刻)버전' App 이 정식으로 출시했다.

공위가 펼쳐보인 청사진 중에서 중국판 Youtube 는 기술 응용 수준, 문화 등 여러 복잡한 요소로 돌아가 더디기만 하고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5G의 도래에 따라 그는 시기가 왔다고 여긴다. '3G 시대에는 그래픽 문자류의 웨이보가 굴기했고, 4G 시대에는 도인류의 쇼트클립이 굴기했고, 5G 시대에는 중등 시간의 짧은 영상의 유행이 올 것이다.'

그러나 중등 시간의 짧은 영상 영역에서 도인, 콰이쇼우도 이미 모두 배치해있다. 2019년 3월 도인은 인지류 콘텐츠 창작자를 위해 5분 시간의 영상권한을 개방했고, 콰이쇼우도 따라서 이 부분 사용자를 위해 10분 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권한 제한을 개방했다.

공위의 판단은 이미 새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사진 5) 출처: 후씨우왕(虎嗅网)

이외에도 2차원 커뮤니티 B스테이션도 이 영역에서 줄곧 심화중이다. B스테이션도 계속 광대한 미디어와 사용자로부터 '가장 중국식 YouTube' 플랫폼이라는 지칭을 받고 있다. 이때 아이치이가 진입한 중등 영상은 아주 이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늦은 것이다.

성립이후 아이치이는 줄곧 스스로를 중국판 넷플릭스라 표방해왔다. 그러나 현재 보건대 이 꿈은 기본적으로 부서진 것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미 뉴미디어 거두인 넷플릭스는 일찍이 성숙하고 선순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해냈고 회원 수량도 일찍이 아이치이가 이루고 싶다고 이를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따라서 넷플릭스의 스토리 외에 아이치이는 또다시 '중국판 Youtube' 스토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여러 번 말한 지 오래 되었으며 아직도 미지수다.

#### 4. 양자컴퓨터 시리즈 44) 미래 컴퓨터의 최종 모습은 양자 컴퓨터

— 과기전언기술추종(科技前言技术追踪) 제공



사진 1) 출처: 과기전언기술추종(科技前言技术追踪)

최근 처리기에 대한 사이버 회의에서 이 회의는 AI 칩을 제조하는 회사가 주도했다. 현재까지 AI 컴퓨팅에 종사하는 회사, 연구실험실, 대학이 200 여 곳 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전문 회의를 파생했으며, 첨단 기술 세미나인 NeuroIPS 의 참가자 수는 매년 두 배로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중요한 처리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은 컴퓨팅의 미래와 전통 컴퓨터의 중간에 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곤란한 문제의 해결은 제 3 종 컴퓨팅 형식-양자 컴퓨팅이 될 것이다.

"미래에는 아마도 고전적인 컴퓨팅, 인공지능 컴퓨팅, 양자 컴퓨팅의 3 종류의 컴퓨팅 유형이 통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컴퓨팅은 미래에 새롭고 더 복잡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비록 양자 컴퓨팅을 전문적으로 토론하는 회의는 여전히 아주 적지만 IBM, Intel, Google, Microsoft 가 모두 이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다. 화학, 암호화, 생물학 및 금융 영역에서 양자를 사용해 진정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다.

양자 컴퓨팅은 즉시 장악하기 쉽지 않다. 일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 과정 연구는 여전히 개발 중이다. 그러나 한 작은 팀이 줄곧 양자 교육을 더 광범위한 대상 IBM Quantum 에게 하고 있다

IBM 은 다른 회사보다 양자 컴퓨터의 공개 액세스 제공방면에 다른 회사보다 이뤄놓은 것이 더 많다.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는 여전히 실험실에 잠겨 있으며 소수의 특권 연구원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IBM 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4 년 동안 양자컴퓨터에 대한 방문을 제공해 왔다.

IBM Qiskit 은 하나의 오픈 소스 풀 스택 양자 소프트웨어 프레임 워크이며, GitHub 에서 다운로드 하는 가장 인기있는 양자 프로그래밍 도구다. IBM 은 Python 과 Jupyter Notebook 환경을 지원한다. 이 회사가 Python 을 선택한 원인은 그것이 광범위한 라이브러리와 지명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지 대량 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 때문이 아니다. Python 은 Quantum 이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업무 과정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양자 처리는 가속기로 간주되므로 라이브러리 함수로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작업과 양자 작업을 포함하여 양자를 주 시스템에 추가하여 특정 작업 부하를 가속화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컴퓨팅 모델은 AI 작업 부하와 유사하다. 기존 프로세서 (arm, POWER 또는 x86 에 관계없이)가 여전히 주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컴파일러는 AI 또는 Quantum 으로 가속화된 작업 부하를 인식하고 이러한 작업을 올바른 가속기에 할당한다.

지난 4 년 동안 IBM Quantum 프로그램은 빠르게 발전해 왔다. IBM "Q Network"는 100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 개 이상의 전략적 산업 파트너, 13 개 연구 센터와 30 개 이상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4 년 동안 이미 20 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등록하여 IBM 양자 도구를 사용하고 IBM Cloud 상에서 양자 회로를 운영했다. 어떤 날이든, 평균 4 억 개의 양자 회로가 IBM 의 16 대 양자 컴퓨터 중 하나에서 운행되고 있다.

만약 양자 회로의 수준에 대해 상세하게 연구하고자 한다면, IBM 도 이 방법을 지원한다. 실제로 이 회사는 새로운 'Circuit Session s '네트워크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다.

'Quantum Supremacy'의 한 기사에서 나온 말이다. "다음 과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양자 컴퓨팅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양자 컴퓨터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 1. '디지털 위안화', 쑤저우 등 지역서 내부 테스트 (비아이 뉴스, 2020.04.20)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의 정식 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온 가운데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가 디지털 화폐 유통을 시험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연내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으로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 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는 선전, 쑤저우, 숭안(雄安), 청두 등 지역과 앞으로 동계 올림픽이 열릴 장소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폐쇄식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화폐 연구소 관계자는 "폐쇄식 테스트는 디지털 위안화의 정식 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테스트는 상장 기관의 상업 활동이나 테스트 지역 이외의 위안화 발행 유통체계, 금융시장, 사회경제 등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화폐 연구소는 "현재 디지털 위안화 연구 개발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은 이중 운영, 본원통화(M0) 대체, 익명성 보장을 전제로 상부구조 설계, 표준 제정, 기능 개발, 연합 조정 테스트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표시했다.

인민은행은 2014 년부터 법정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다. 2017 년 말 인민은행은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상업은행, 관련 기관 등과 함께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는 점진적인 보급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상은행(工商银行), 농업은행(农业银行), 중국은행(中国银行), 건설은행(建设银行) 등 4 대 은행의 급여지급 대행과 공공서비스를 거쳐 후속적으로 인터넷 기업과 사업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무장춘(穆长春)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 "종이화폐와 같은 기능적 속성이 있다"면서 "다만 종이화폐와 다른 디지털 형태를 취한 지급 도구"라고 명확하게 정의했다.

무 소장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디지털 위안화 지급에 등급과 한도액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한 대형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도 은행 계좌에 예금이 가능할 것"이라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지급 또는 은행의 ATM 기에서도 입출금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달리 중앙은행 디지털 위안화의 기능과 속성은 지폐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위안화는 다음 달 일부 도시에서 교통 보조금 형식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 2. 세계 최대 은행 中 공상은행, 블록체인 백서 냈다 (중앙일보, 2020.04.22)

시총 세계 1 위 은행이자 중국 국유은행인 공상은행(ICBC)이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응용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여러 산업군 중에서 금융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으며, 자금관리·공급망금융·무역금융·디지털자산 관리 등 분야에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은 발전 초기단계여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는 대형 은행이

블록체인 백서를 정식으로 내놨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 전방위적으로 적잖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 #공상은행, 中 은행권 최초 블록체인 백서 발표

4월 21일 중국 매체 시나닷컴에 따르면 공상은행 핀테크연구원은 '블록체인 금융 응용 발전 백서'라는 제목의 블록체인 백서를 업계 최초로 발표했다. 백서는 블록체인 정의와 응용 모델, 발전 상황 등에 대한 기본 정보와 금융업이 처한 문제, 금융권 내 블록체인의 활용 가치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 #中, 정부 지원 하에 자체 블록체인 구축

백서는 블록체인의 발전 추이에 대해 해외와 중국 사례를 구분했다. 해외는 커뮤니티나 컨소시엄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반면, 중국은 기업의 자체 기술력과 업계 영향력을 통해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R3, 하이퍼레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EEA) 등은 전자에 속하며,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의 앤트블록체인, 바이두의 슈퍼체인, 텐센트의 트러스트 SQL 등은 후자의 경우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블록체인을 자주 기술 혁신의 핵심 돌파구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에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도 상당수라고 백서는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 중앙 정부가 내놓은 블록체인 정책은 21개이며 성급 지방정부는 106개에 달한다. 산업 표준을 제정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 공업정보화부가 중국 첫 블록체인 관련 표준을 내놓은 데 이어 올 2월 인민은행은 첫 금융 관련 표준인 '금융 분산장부기술 안전규범'을 내놨다.

#### #블록체인 응용 분야 중 금융 최대

백서는 블록체인 응용 분야 중에서 금융업 사례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중국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업체는 420개이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량은 506개다. 이중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업체는 72개로 17%를 차지하며, 이들이 120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상은행도 블록체인 연구개발에 적극적이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5세대(5G) 이동통신·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융합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자금관리·공급망금융·무역금융·추적·디지털자산 관리 등에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구이저우 빈곤지역 자선기금관리, '시진핑 도시'로 일컫는 송안신구 내 자금관리, 공급망금융 플랫폼 '공상은행 e 신', 무역금융 플랫폼 '중어우 e 단통' 등이다.

#### #"블록체인, 신뢰 높이는 도구 불과"

하지만 백서는 블록체인이 신뢰를 향상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블록체인은 신뢰할 만한 데이터 공유 환경을 마련하는 것일 뿐 실제 응용 측면에서는 다른 기술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서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한계가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타 기술과 융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피력했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분야가 아직 발전 초기단계라는 점도 지적했다. 백서는 "여러 업계와 기업을 아우르는 응용 사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며 "시범 단계에서 전면 상용화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실제 활용 시에도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3. 지폐는 가라, 중국이 당긴 '디지털 화폐' 전쟁 (조선일보, 2020.04.22)

지난 17 일 오전 중국 증시 개장과 함께 필리센트(飛利信)·후이진(匯金) 등 '디지털 화폐 테마주' 주가는 4~10%씩 급등했다. 전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스마트폰 전자지갑에 중국의 관영 디지털 화폐(CBDC)가 입금된 사진과 함께 내달 중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것'이라는 말이 퍼졌기 때문이다. 전자금융 서비스 업체 등 관련주 32 개를 포함하는 디지털 화폐 테마지수는 이날 1203 으로 주초 대비 8.9% 상승했다. 19 일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가 "당장 시장에 유통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도시에서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확인해주자, 이튿날 디지털 화폐 테마지수는 1249 까지 상승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관영 디지털 화폐의 실체가 처음으로 공개되며 올해가 글로벌 디지털 화폐 확산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전자 결제 시스템과 블록체인(분산저장)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화폐가 현금을 대신하는 광경이 펼쳐진다는 뜻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非對面) 거래 수요가 정착될 것이라는 점도 디지털 화폐 시대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국내에서도 내년에 디지털 화폐 테스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터치'로 결제하는 디지털 화폐

'글로벌 디지털 화폐 혁명'의 선두에는 인민폐를 기축통화로 삼아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중국이 있다. 20 일 중국 현지 언론들은 "5 월부터 쑤저우(蘇州)시 공무원과 구(區) 단위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 보조금의 50%를 디지털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4 월 중에 시스템 테스트를 완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2022 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화폐를 전면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조만간 선전·충안·청두시에서도 디지털 화폐의 시범 사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실제 발행도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 화폐는 별도의 은행 계좌 연동 없이도 스마트폰에 직접 저장하고, 간편 송금·결제 등을 진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핑이핑(부딪쳐봐요)'이라는 기능이 눈에 띈다. 중국 시나닷컴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된 상황에도 스마트폰과 결제 단말의 접촉만으로 현금을 쓰듯 결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페이스북, 리브라에 CBDC 수용

세계 금융질서 패권을 쥔 미국에서는 아직 정부 차원의 디지털 화폐 발행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미국 IT 기업인 페이스북이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은 세계 주요 국가의 관영 디지털 화폐와 실시간 교환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16 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리브라' 개발을 이끌고 있는 리브라연합은 새로운 백서를 공개하고, "달러·유로·파운드 등에 각각 연동되는 복수의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는 가상화폐)을 발행해 각국의 디지털 화폐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애초 아예 기존 금융 체제에서 벗어난 가상화폐 리브라를 개발하고, 올해 실제 사용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구권 정치·금융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관영 디지털 화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노선을 바꿨다.

페이스북의 계획대로 리브라가 유통되면 자국 관영 디지털 화폐를 소지한 이용자는 해외여행 때 리브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게 된다. 환율이 어떻게 책정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리브라가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디지털 화폐가 미·중 패권 전쟁의 또 다른 전장(戰場)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 ◇코로나도 디지털 화폐 도입에 영향

미·중 이외 나라 정부도 디지털 화폐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5 일 '코로나 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 수단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금 사용이 크게 감소했고, 비대면 결제는 확대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6 개 중앙은행 중 80%가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디지털 화폐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신용카드와 온라인 간편 결제 인프라가 잘 깔려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최근 방향을 바꿔 올해 안에 관영 디지털 화폐 구현을 위한 기술 검토를 마치고, 내년 시범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지난해까지 CBDC 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일본·캐나다·스위스 등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과 함께 CBDC 공동 연구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 4. 블록체인에 힘신는 중국...칭다오서 거래 플랫폼 시범 운영도 (blockinpress, 2020.04.23)

중국 칭다오(Qingdao)에서 국경 간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이 첫 거래를 완료했다. 이 플랫폼 서비스는 칭다오 은행이 제공할 예정이다.

22 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시범 거래에는 칭다오 기반 기업 37 개 사가 참여했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 멕시코, 인도 등의 기업과 거래를 완료했다. 각 기업들은 회사의 신용정보 검증, 수출, 대출 승인, 전자 세금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이 매체는 "놀라운 사실은 단 10 분 만에 수억 달러에 달하는 거래가 처리됐다"며 "본래 이런 거래를 완료하려면 적어도 12 시간이 필요했고, 각 기업들은 관세청을 찾아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차량 브레이크 제조업체 보렉브레이크시스템(Borec Brake System Co., Ltd.)은 "이렇게 금융 대출이 빠르게 이뤄질 줄 몰랐다"며 "운영이 정말 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플랫폼 덕분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칭다오 시 측은 "시범 프로그램을 확장할 것"이라며 "다른 은행과의 네트워크도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 5. 中 산업정보화부, "블록체인이 새로운 경제 성장 이끌어" (BLOCK MEDIA, 2020.04.24)

중국 산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블록체인, 5G, 인공지능, 공업 인터넷,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사람의 생산·생활 수요를 충족시켜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23 일 밝혔다.

중국 현지 매체 인민일보(人民日报)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 브리핑은 지난 23 일 15 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산업정보화부 신문 대변인이자 정보통신발전국 국장 문고(闻库)는 방역 과정에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인터넷 화상 등, 신형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장되고 있으며, 그 중에 블록체인 등이 생산 회복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산업정보화부는 올해 1분기 정보전송 및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증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며, 모바일 인터넷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39.3%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리빈(黄利斌) 산업정보화부 운행모니터 조정 국장은 "산업정보화부가 앞으로도 블록체인,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기술혁신과 산업활용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4G 와 5G 기지국 건설을 가속시킬 것이다"라고 전했다.

#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1. '짐로저스 "반드시 사상 최악의 위기가 온다"' (동양경제 온라인, 2020.4.23)



사진 1) 출처: Luxpho (Takao Hara), 짐로저스씨는 '신형코로나위기가 지난것처럼 보여도, 사상최악의 위기가 온다'라고 말한다

파이낸셜 플래너의 하나와요코입니다. 올해 들어 저는 신형 코로나 쇼크 이후를 포함해 두 차례 세계 3 대 투자가 중 한 명인 짐 로저스 씨(싱가포르 거주)를 인터뷰했고, 5 월 8 일 로저스 씨의 저서로 짐 로저스 대예측: 격변하는 세계의 시각(동양경제신보사 간)을 긴급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천재 투자자는 코로나로 변해버린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 ■세계가 대불황에 돌입하는 것은 불가피

"세계가 대불황에 돌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를 정지시키고 국경을 닫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드디어 긴급사태 선언이 전국 레벨로 확대되어 많은 사람이 자택 대기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있지만, 로저스씨나 내가 사는 싱가포르에서는, 보다 엄격한 록다운(도시 봉쇄)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공용설비도 대부분 봉쇄되어 최소한의 필요 식량을 사러 가는 것 이외에는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정도이다. 쇼핑을 갈 때에도 사회적 거리를 확보할 수 없으면 벌칙이 있다.

중국에서는 록다운이 해제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경을 이전과 같이 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국 금융당국과 정부가 잇달아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신형 코로나 쇼크로 NY(뉴욕) 다우는 3 월 16 일 하루에 2997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고, 4 월에 들어서도 20 일에는 NY 유 선물가격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비정상적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로저스씨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과잉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서도, 사람들은 실제로 "공포"에 지배되고 있어 세계 경제가 패닉적인 대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주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50%, 60, 70%, 아니 그 이상일 것이다. 실물경제의 침체는, 머지않아

금융기관의 파탄을 가져와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한다. 언제라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미국의 경기 확대는 10 년 이상 계속되었다. 이번 경기 확장은 역대 최장이었다. 하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주가는 1 자로 급락했다. 이렇게 빨리, 크게 시세가 내린 것은 첫 경험이라고 한다.

로저스씨는 다음 금융 위기가 과거 최악이 되는 이유로 세계 모든 나라가 매우 큰 채무를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리먼 사태 때는 중국이 거액의 재정지출을 하는 '여유'가 있었고 그로 인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도 지금은 큰 빚을 지고 있다.

#### ■ 중앙은행도 무한정으로 채무를 늘릴 수 없다

미국 중앙은행의 재무제표는 계속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는 발행 기업으로부터 신발의 채권을 직접 사는 등 하고 있어, "위기를 심각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자세이다. 일본에서도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를 실시해, ETF(상장 투자신탁)나 상장 REIT(부동산 투자신탁)등을 매입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로저스씨는 경종을 울린다. "중앙은행도 무한히 채무를 계속 늘릴 수 없다.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온다. 어느 날 갑자기 시세 참가자의 태도가 바뀔 때가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 국면에서는 이제 누구도 세계경제를 구할 수 없다. 다음 위기는 사상 최악의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로저스 씨는 "파탄의 연쇄는 점점 더 커진다"고 말한다. 2008 년 리먼 사태 때는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가 파산했지만, 그 이전인 2007 년에는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탠스가 거액의 손실을 입거나 영국의 은행 노던록이 파산하는 등 이미 위기가 발생했다.

이번 위기에서도 이미 미국 중견 세일 개발 기업이나 호주의 항공사가 파산한 상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액의 자금 투입으로 현명하게 기업의 파탄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커다란 문제로 이어진다고 한다.

현재는 연방은행도 함께 뭉쳐 대량의 돈을 찍어 문제를 무마하고 있지만, 금융 위기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연쇄된다, 라고 말한다.

#### ■ 일시적으로 환율 상승해도 더 악화될 뿐

"세계의 중앙은행은,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것이 다음의 버블을 낳을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말할 수 없다. 사실, 리먼 사태 때에는 "100 년에 한 번 있는 경제위기"라고 일컬어지면서, 그 후 불과 수년 만에, 그것을 웃도는 규모의 새로운 금융 버블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로저스씨는 말을 잇는다.

"이런 일련의 잘못된 정책이 성공해 일시적으로 큰 랠리(상승장)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미국의 연방은행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융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 중앙은행은 그동안 많은 돈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기로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해 더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다. 그것이 결국 더 큰 악화를 부른다”.

그럼 공전의 위기 속에서 개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모두가 장기 투자를 해 ETF 를 사면 노후는 안전"이라고 하는 상황은 벌써 과거의 것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필자도 4 월 초순부터 개별주를 사기 시작하고 있지만, 베어(약세) 시세에서는, 종목에 의한 차이가 매우 크게 난다고 보여지고 있다.

하나와 요코 花輪 陽子: 파이낸셜 플래너

## 2. '코로나대공황'일본인에 다가오는 커다란 난제 (동양경제 온라인, 2020.4.20)



사진 1) 출처: 동양경제 온라인, 외출자속으로 한가한 도쿄역앞

"2020 년 세계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경제적 영향은(1929 년 시작된)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게오르기예바 전무이사는 4 월 9 일의 강연에서 그렇게 지적했다. 세계는 대공황, 혹은 그 이상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1929~33 년의 대공황으로 미국은 실질 GDP(국내 총생산)가 약 3 할 축소되고, 실업률은 25%에 이르렀다.

그 재래가 되는 것인가.

세계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수는 4 월 17 일 시점으로 약 217 만명, 사망자수는 약 14.6 만명에 이른다(미 존스·홉킨스 대학 조사). 그 중 최대의 감염자수, 사망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이다.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휘청거리고 있다.

### ■ 모든 산업에서 타격

"주간 동양 경제"4 월 20 일 발매호는 "코로나 대공황"을 특집. 1929 년부터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본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점검한다.

일본은 이제부터가 고비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4 월 16 일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의 선언의 대상이었던 7 도부현 이외에서도 감염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감염 방지 대책인 만큼, 경제의 하강은 모든 산업에 미친다.

일본은행의 3 월 단관을 바탕으로 한 업종별 업황판단 DI. 6 월 업황전망이 "좋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쁨"의 비율을 뺀 지수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마이너스, 즉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 특히 숙박·음식 서비스의 엄격함이 두드러진다. 3 밀(밀폐, 밀집, 밀접)을 피하는 행동이 요구되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호텔이나 음식점에 가는 사람이 급감했다.

업황 악화에 의한 매상 급감은 기업의 자금유통을 꺾박하게 한다. 정부는 사업규모 108 조 엔의 대형 경제대책을 내놓아 뒷받침하려 한다. 그러나 음식점은 잃었던 매출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빛을 짚어져도, 그것을 변제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업 계속을 포기하는 경영자도 나올 것이다. 신형 코로나 영향으로 자진 폐업이나 도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경제의 정체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신흥국에서는 앞으로의 감염 폭발이 염려되고 있다. 만약 성공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감염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해도, 해외의 영향에 의한 제 2 파, 제 3 파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한 공포가 있는 한, 경제활동을 활발화시키기는 어렵다.

#### ■기업도산→부실채권→금융위기 우려도

해외에서 감염이 계속되면 글로벌한 활동은 억제되어 경제는 저성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유례없는 경제 대책으로도 지탱하지 못하고, 도산의 연쇄가 멈추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기업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막대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위기로 연결되는 것을 막으려고,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 매입과 정부에 의한 국채 증발이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공적채무 잔액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이다.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각국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일본 국채에 대한 신임이 저하될 염려는 지울 수 없다.

일본 국채에의 신뢰가 흔들리면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다. 우리는 그 리스크마저 내다봐야 한다. 정부에 기대지 않아도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각오가 민간기업에는 요구되고 있다.

### 3. 일본은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인재다 (Newsweek, 2020.4.23)



사진 1) 출처: REUTERS, 마스크와 10 만엔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기감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보다 늦게 코로나 위기가 닥친 유럽에서는,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벌써 경제 재개에의 기여 체인지가 시작되고 있다. 중국 한국은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으로 막 확대한 것. 왜 이렇게 대응이 늦었는가?>

유럽은 아직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벌써부터 경제활동 재개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망자가 4 만 5000 명을 넘어섰고 아직도 매일 2500 명이 넘는 미국에서조차 재개 시기와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을 정도다.

아시아에서는 재빨리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그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수습의 목표가 섰기 때문에, 대만, 한국은 세계로부터 극찬받는 대응으로 극복해, 중국조차도 경제활동의 회복에서는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을 4 월 7 일이나 한다는 가장 늦은 움직임을 보인 데 이어 이제 와서 14 일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심지어 이것이 불충분하게 활동 제한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느냐는 논의마저 4 월 22 일인 지금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왜 일본은 이처럼 대응이 늦는가, 늦었는가.

#### <과학보다 여론 우선>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문지식의 부족과 경시이다.

정부의 감염방지책과 대응책은 여론에 따라 움직인 것이고, 그 여론도 일부 언론에서 부추기는 전문가에게 휘둘리는 한편, 그것을 SNS 로 증폭시킨 논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과학적인 접근과 검토가 치명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는 식으로 전문가 모아놓은 회의 등을 해놓고도 결국 여론 우선으로 정치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해왔기 때문에 매우 엉뚱하고 효율성이 안좋은 것이 되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일본의 코로나 위기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도가 낮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생겼으니 이런 말은 피하는 게 보통인데, 그 때문에 누구도 말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굳이 말하자면 일본의 코로나 위기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렇다.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도 300 명 남짓이며 미국의 약 200 분의 1 이다. 대응이 절찬되고 있는 독일조차 사망자는 5000 명이 넘는다.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도 프랑스도 2 만명을 넘어 영국은 1 만 8 천으로 이번 주에 2 만을 넘을 것은 확실하다. 인구는 일본의 절반으로 이러니 인구비로 따지면 엄청난 일본과의 차이이다.

그 결과, 일본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기감이 없이, 그냥 떠들고 있는 것이다.

절실한 목소리는 대부분 중소기업, 특히 음식점에서 나온다. 이대로는 무너지고 만다, 죽고 만다, 라는 것이다. 거의 모든 것은 경제적 위기이다.

#### <중소기업도 진정한 위기감 결여>

한편 정부는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용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경험이 풍부하다. 정부 금융기관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자금조달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 빠르게 발표, 5 년간 상환유예의 무이자 무담보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파격적인 지원책이다. 일본에서 이것이 파격적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항상 이런 종류의 자금용통을 지원하고 공적 금융기관도 익숙하기 때문에 특별감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하고 있는 것으로 움직임을 신속했다. 미국도, 이번에는 사상 첫 시도를 FRB(미국의 중앙은행)가 실시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조치가 의회를 통과했지만, 그 37 조엔의 용자 보증

한도가 이미 고갈되어, 추가 조치가 결정되어, 30 조엔 이상의 보증이 될 전망이다. 반면 경험이 많은 일본은 대출자금이 고갈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일본 음식점 경영자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유는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빚을 지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해 달라는 것이다.

#### <정부에 현금 지급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진정한 위기감이 없음을 보여준다. 정말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면 정부 지원금으로 매출 제로로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하루 빨리 폐업하고 지혈해야 한다. 투자를 상당히 하고 있고 계속할 의사가 강하면 5년 상환유예의 무이자 무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조달을 막고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3개월 매출 급감에 따른 적자를 5년에 걸쳐 갚는 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다. 위기인 미국은 생존을 위해 직원을 해고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2000만 명의 신규 실업자가 생겨나고 37조 엔의 자금지원 조치는 종업원에 대한 휴업수당을 주기 위한 지원이지 미국조차 급부가 아니라 용자지원이다.

일본 음식점의 어려움은 임대료 문제이고 일본의 부동산 거래 관행은 유연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에 호소할 점은 이 점으로, 집세의 유예, 감면을 오너와 교섭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력적으로 지원해야 한다(정부는, 오너에게 감면했을 경우의 우대조치를 결정했다).

즉 일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체제는 세계 최고수준인 것이다. 주인과 월세 협상을 끝내기 전에,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정부에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다르다. 우선은 경영자로서 임금과 월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종업원이 휴업수당으로 버텨줄지, 해고하고 실업급여로 버텨줄지 설득해 집주인과 협상한다. 이것이 경영자로서의 현재 긴급하게 할 일의 전부이고, 그래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여론은 정부에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정부가 안 된다고 하자 지자체가 현금을 주기로 했다. 도쿄도는 50만 엔, 혹은 100만 엔을 나눠준다. 그런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 <“종이와 연필로” 감염경로를 쫓는 보건소>

왜 일본만이 가능한가? 위기가 다른 나라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하면 순식간에 국가파산이다.

한편 정부도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여론 대책으로 소비자를 포함한 전국민에게 14조 엔을 나눠주기로 했다. 만약 위기가 심각하면 14조는 소비자에게 1엔도 나눠주지 말아야 하고, 그럴 여유는 없고, 모든 것은 실업자, 도산 방지를 위한 자금유통에 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의료 붕괴는 일어나고 있다. 이미 큰 위기라는 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뉴욕의 참상에 비하면 위기는 아니다. 아직까지 신형 코로나 전용과 그 외의 병원 분업을 완전히 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나마 아슬아슬하다, 견딜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장이 비명을 지른다 해도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제도의 연장으로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본적인 변경, 분업의 완전 실시를 실시하지 않았다.

#### <왜 필사적으로 한국을 배우지 않는가>

보건소도 종이와 연필로 감염자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 당시의 전차에 죽창으로 향하는 이상의 싸움으로, 로켓에 활로 대항하는 것과 같다. 한국에 배우고 한국방식을 100%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도 10 만 엔을 정부에 나눠주게 해 승리라는 인터넷 여론이 비등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이다. 위기라면 돈은 모두 의료와 실업자에게 집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데도 코로나는 서서히 진정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달리 사스, MERS 에서 배우지 않았듯이 이번 코로나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다음 감염증 위기 때도 위기감 없는 대응으로 견디려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위기가 찾아오고, 그 때 비로소 위기감이 생겨 일본도 위기대응을 하는 체제를 대신해 갈 것이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정부의 대응이 외국에 비해 몇주나 늦은 대응이 되어 버린 것은 위기감이 국민 전체에 없었기 때문이며, 지금도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상대적으로는 유럽 정도의 위기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적 비명이 나오는 것은 위기가 아닌데도 선불리 위기라고 부추긴 정치인 언론 사람들이 다수파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쓸데없는 대책에만 분주해, 마스크나 10 만엔을 나눠준다고 하는 위기감 없는 대응을 하게 되어, 지사들도 정치 활동에 열심이고, 휴업을 부탁하는데 돈을 나눠준다고 하는 세계적으로 예를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첨된 대응을 했던 것이다. 여유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정말 위기라면 휴업은 필수이고, 돈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행위는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패닉은 코로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기감이 없는 사람들이 난리를 피면서 생긴 인재다.

위기는 아니고 위기감도 없다. 이것이 일본 코로나 쇼크의 본질이다.

#### 4. 코로나위기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일본제조업의 불편한 진실 (JB press, 2020.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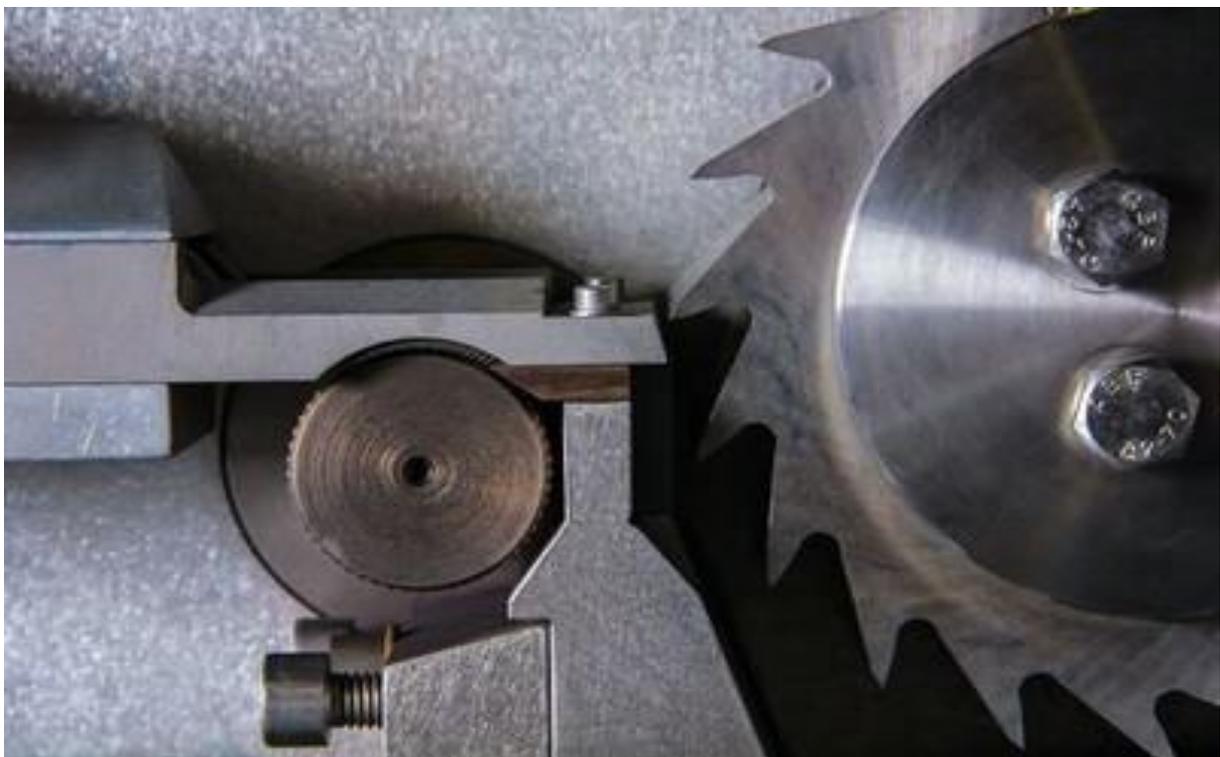


사진 1) 출처: JB pres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에 따라 마스크나 방어용 가운, 인공호흡기, 알코올 같은 자재의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 의존해온 외산값이라며 국내 생산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자국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생산한 의료용 기구의 수출

제한에 나서고 있다(비판에 따라 일부 해제).

국내 생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바로 정론이며, 안전보장상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은 간단치 않다.

일본이 많은 제품을 해외에 의존해온 배경에는 국내경제의 만성적인 저수익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 여기에 손을 대지 않으면 국내 회귀하라고 소리쳐 본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일본 사회가 못 본 체해 온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 ■ 전혀 해소되지 않는 마스크 부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본격화해 온 2020년 2월 이후,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손에 넣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약국 등의 점포에서는 대부분 품절 상태여서 드물게 입고되더라도 금세 매진되는 상황에서 몇 안 되는 마스크를 찾기 위해 개점 전부터 줄을 서 있는 곳도 많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스가관방장관은 2월 12일, 주당 1억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을 나타냈지만, 그 다음 주에는 일본 제지 연합회가 "증산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고, 당분간은 품귀 상태가 계속 된다"라고 정부의 견해를 정면 부정. 스가씨는 다시 마스크를 언급하며 "3월부터는 월생산 6억 장의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지만 마스크 부족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만일 1억 장이 공급된다고 해도 마스크는 여러 장이 세트로 판매되므로 5장 세트라고 하면 2000만 세트밖에 없다. 더구나 의료기관 등 긴급성이 높은 조직을 대상으로 우선 출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산체제 1억 장으로는 당분간 물품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마스크의 대부분은 비용면에서 중국제로 되어 있어, 중국으로부터의 출하가 막히면 원래 제품을 조달할 수 없다.

스가씨가 무슨 생각으로 이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증산하기는 어려웠고 국민에게 거짓 설명을 하는 결과가 됐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전에 없이 증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안이한 설명이 불신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4월 들어 의료기관의 마스크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어 경우에 따라 의료체제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대기업 중에는 국가에 기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기업도 있지만 심각한 마스크 부족에 따라 가장 먼저 마스크 생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제 외국기업이 된 샤프나 철저한 소비자주의로 국가권력과 거리가 먼 아이리스 오야마 같은 기업이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 중국·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

이런 비상시에는 국가 이기주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독일 정부는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용 마스크, 장갑, 방호복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 미국 등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일부는 해제됐지만 각국은 필요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해올 것이다.

마스크에 사용되는 부직포는 중국이 압도적인 쉐어이지만, 독일도 높은 수출 쉐어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마스크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마스크뿐 아니라 방호복이나 페이스실드,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

알코올 부족도 심각하다. 소독용 알코올의 원료는 거의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게다가 일본에는 대형 케미컬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편리성이 높은 항만이 적기 때문에 최신 설비가 갖추어진 한국을 중계 지점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송이 멈추면 일본은 알코올 조달이 어려워진다.

폐렴환자의 마지막 의지가 되는 인공호흡기 제조회사는 중국이나 미국, 독일 등이 중심이며,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치의 대부분은 수입품이다. 세계는 인공호흡기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생산능력이 없는 나라가 수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의존에서 벗어나라" "국내 생산체제를 강화하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요한 물자에 대해 국내조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정론일 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왜 이런 조치가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중요한 물자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 비상시에 심각한 사태에 빠질 것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인은 지능이 낮은 것일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충분히 예견됐으면서도 이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하고, 반대로 말하면 이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 ■ 독일이 자국에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이유

많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독일이 중요 물자를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고, 같은 제조업종으로 나라를 만들어 온 일본에서, 같은 일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경제력에 큰 격차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 기업의 생산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유 있는 생산·조달 체제를 구축할 수 없으며, 이것이 비상시의 사회의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 얘기를 하면 "또 생산성 얘기냐" "이제 신물이 난다" "뭐든지 해외와 비교하면 된다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 쏟아져 나온다. 분명하게 말하자. 일본이 (선진 여러 나라와 비교해) 열위에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경쟁을 기피하는 이러한 가치관이야말로 일본의 생산력을 저하시켜 사회를 취약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노동생산성(시간당)은 72.9 달러로 일본의 1.6 배나 된다. 기껏해야 1.6 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같은 인간이 똑같이 일해 상대방은 1.6 배의 부를 벌고 있는 셈이지만 이 격차는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심상치 않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같은 공업국이면서도 1.6 배나 생산성이 다르다는 것은 중산층과 부유층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도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거의 100% 나오지만, 생산성 수치는 구매력 평가를 이용한 것이므로, 당연하게도 물가의 차이는 고려되고 있다. 물가가 달라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독일의 공업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고부가가치 분야이지만 일본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여전히 박리다매의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어 중국 등 임금이 싼 나라와 코스트 승부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만약 일본 메이커의 고부가 가치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으면, 의료가기나 의료 기구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가격이 높은 제품으로 시프트 함으로써 생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던 기업이 제품의 스펙을 떨어뜨리는 것은 쉬우므로 비상사태 시에는 그 생산력을 일반적인 마스크 생산에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 ■ 생산성 차이는 정부 재력과 직결된다

생산성 차이는 정부의 재력에도 직결된다.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임금도 높다는 것은 경제학적 상식이고 임금이 높으면 소비도 활발해져 세수가 늘어난다. 독일에서는 소비세율이 20%가까이 있지만(경감세율 있음),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일본처럼 소비증세로 소비가 위축되는 일은 없다.

법인세 세수도 견조하기 때문에 정부는 최근 7 년간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독일은 이번 코로나 위기로 기존 방침을 바꿔 대규모 경제대책에 대비해 적자국채 재발행을 결정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는 국내 프리랜서 취업자(독일에 사는 외국인 포함)에게 수십만 엔(최대 9000 유로 사업소 상황에 따라 금액은 변화)을 즉각 지급해 외국을 놀라게 했다.이 정도로 재정이 튼튼하다면 국채 증발이나 소득 보상의 선심 쓰기는 아주 간단할 것이다.

세수가 튼튼하면 의료체제에도 여유가 생긴다. 독일은, 유럽 중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치사율이 낮게 추이하고 있지만, 이것은 충실한 의료 체제가 크게 공헌하고 있다. 독일의 인구 당의 ICU(중환자실)의 수는 일본의 5 배 가깝고, 인구 당의 의사수도 일본의 2 배 가까이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1 일 당 5 만건이나 실시하고 있다(더욱 확충될 전망). 경제 전체의 여력은 긴급 대응력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은, 왜 이러한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해, 풍부하고 강인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 가장 큰 것은 교육이다.

#### ■ 자국의 생산능력과 대학교육은 링크돼 있다.

이 나라에서는 제조업의 높은 부가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교육과 영어교육을 철저히 중시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은 원칙적으로 등록금이 무료이며 이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도 적용된다. 독일 대학에서는 10% 이상이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어 국내에서 영어 통용력은 매우 높다.

중국 등 신흥국이 제조하는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이면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으면 팔리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은 그렇지 못하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솔루션형 영업을 필요하므로, 제조업으로 생업을 해 나가려면 대학교육과 영어 실력은 필수라고 해도 좋다. 일본에서는 유학생의 수용 확대나 대학의 무상화에 대해 뿌리 깊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자국의 생산력을 강화할 수 없을 것이다.

경쟁 정책도 상당히 가혹하다. 독일 기업은 언제라도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극진한 고용보험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노동자는 해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신 노동자는 항상 기술향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가혹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경영자에 대한 요구도 엄격하고, 보신을 목적으로 채무초과를 방지하면 처벌한다고 하는 엄격한 룰이 있다. 일본처럼 적정성이 없는 인물이 연공서열로 기업의 정상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물론 우등생인 독일에도 큰 결점이 있다. 그것은 온 국민이 이런 가혹한 사회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즉, 제조업 강국으로 해 나가려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에, 독일은 비상사태에서도 지극히 높은 대응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국내 생산체제 확충을 시도하는 것은 안전보장상 의의가 있는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이 독일인과 같은 각오를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과연 국민의 컨센서스는 얻을 수 있을 것인가.

## 5. 코로나 쇼크가 드러낸 “일본인의 어리석은 근로방식” (President Online, 2020.4.22)

### ■ 텔레워크로 이행한 곳은 고작 5%

이번 코로나 쇼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면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던 일본 사회의 근로방식 허점을 드러내게 됐다.

근로방식 개혁과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방지책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근로방법 개혁이 확실히 실천되어 있던 조직은, 감염 방지책을 강구하기 쉽다. 안타깝지만, 향후, 코로나 대책이 가능한 기업과 할 수 없는 기업간에, 큰 격차가 생겨 갈 것이다.

후생 노동성과 LINE 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일로 텔레워크(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약 5%였다. 인재회사인 퍼솔종합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회사에서 텔레워크를 권장하는 사람의 비율은 18.9%,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사람은 3.2%, 실제로 텔레워크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은 13.2%였다.

후생 노동성과 LINE 의 조사는 2400 만명이 대상이 되고 있어 모집단이 꽤 많다. 한편 퍼솔종합연구소도 2 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이지만 조사대상자는 정규직이다. 어느 정도, 회사의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는 케이스에서는 10%초과가 텔레 워크로 이행하고 있지만, 일본 전체라고 하면 5%정도라고 하는 것이 실정일 것이다.



사진 1) 출처: iStock.com / EllenaZ

일본의 취업자수는 약 6000 만명, 퍼솔의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20~59 세의 정사원수는 약 2700 만명이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후생노동성과 LINE 의 조사에서는 300 만명, 정사원으로 한정된 퍼솔의 조사에서는 356 만명이 텔레워크에 이행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이 숫자에 대해서 "적다"라고 하는 인상을 가진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텔레워크로 이행하고 싶어도 직업상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대면에서의 업무가 요구되는 각종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애초에 현장에 가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

#### ■제도가 잘 돼 있는데 "하기 싫다"

앞서 일본에서는 약 6000 만 명이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중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종사자는 2600 만 명으로 비교적 많다. 확실히 직종상 텔레워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한편, 원리적으로 텔레워크가 가능한 노동자가 나름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600 만명의 노동자가 원리적으로 텔레워크가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300 만명에서 400 만명이라는 숫자는 역시 적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많은 비즈니스인이 텔레워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이론상으로는 텔레워크로 이행할 수 있는 직종이면서, 수십 % 정도밖에 텔레워크로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의 퍼솔 조사에서는 텔레워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서 가장 많았던 것은 "텔레워크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41.1%)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는 텔레워크를 위한 시스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항목이 있는데, 비율은 낮아 17.5%로 나타났다.

즉, 반 가까이 회사들은 물리적인 환경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만, 이 이유는 반은 의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제도가 없어 실행할 수 없다고 설명할 때는 대개 하기 싫다는 의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텔레워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본의 조직문화

텔레워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PC 나 통신 환경 등 물리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을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텔레워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진행방법, 지시하는 방법, 평가방법과 같은 소프트웨어면이다.

일본의 직장에서는, 전원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상태를 보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방식이 표준적이 되어 있다. 이것은 곧, 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상사의 지시를 내리는 방법도 애매하다는 반증이다.

일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태스크에 근거해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항상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서적인 부분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직문화의 경우 개인이 책임지고 일을 완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이 같은 시간에 출근해 마지막 일이 끝날 때까지 모두가 야근을 하게 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래서는 만원전차에 의한 통근을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근로방식 개혁이 외쳐지고 있지만 그다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논리를 경시한 기업문화에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 ■ 업무 프로세스의 재정의야말로 매니지먼트층의 일이다.

이 지적은 몇 년 전부터 행해지고 있지만, "일에는 미묘한 거래가 있다" "구미와 같이 드라이하게 가지 않는다"라는 반론이 많이 들린다.

확실히, 창조성이 높은 극히 일부 직종의 경우, 미묘한 교환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인 화이트칼라가 종사하는 일의 대부분은 루틴워크이며, 업무의 설계만 제대로 하면 일은 흐르는 것이다.

본래라면 근로방식 개혁 실시를 통해 기존 기업문화를 변혁하고 논리로 일이 진행되는 체제로 옮겨갔어야 했다. 이러한 소프트 면에서의 환경만 갖추어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PC 나 통신 서비스 등 물리적인 면의 준비가 갖추어지면, 곧바로 텔레워크로 이행할 수 있다.

도장이나 종이 서류 등 직장에 가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듣지만 이 역시 궁리하기에 따라 출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행정절차 등 꼭 날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발생빈도나 분량 등에 따라 정리하여 작업하면 된다.

사내의 품의절차 등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의하는 것이야말로 매니지먼트층의 일이라고 해도 좋다.



사진 1) 출처: 슈와시스템, 카야케이찌 『일본은 이제는 '후진국'』

근로방식,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생산성의 리얼! 왜 미국인은 적당히 일을 해도 생산성이 높은가?

■ 텔레워크시대에 존재의의가 추궁당하는 인간의 특징

재빠르게 텔레워크로 이행한 회사는 이전부터 업무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매니지먼트 층의 능력도 높다고 생각된다. 당연하지만, 그러한 조직이라면, 일하는 방식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텔레워크에 큰 지장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근로방식 개혁과 코로나 대책의 텔레워크는 완전히 링크되어 있어, 최종적으로는 매니지먼트층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 거짓 없는 현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 확실하며 더구나 이번 감염이 종식된 뒤에도 비슷한 감염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향후는 텔레워크를 포함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간에 절망적인 정도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특히 존재 의의가 추궁 당하는 것이 관리직층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을 적절히 할당하고 진척을 관리하고, 성과 달성을 위한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없으면 관리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 되지 않는다. 온종일 회사에서 위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상사로서의 위엄을 유지했던 인물은 텔레워크 시대에는 존재 의의를 상실할 것이다.

부하에게도 상응하는 각오나 스킬이 요구된다. 상사로부터 몇 번이나 재촉받지 않으면 마감을 지킬 수 없는 사원이나, 방향성을 조정할 수 없고, 아웃풋의 내용을 지적받아 "아까는 OX 라고 말했잖아요"라는 대사를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원, 혹은 메일이나 사내 채팅으로 적절히 회답할 수 없는 사원은, 텔레워크 시대에 따라갈 수 없게 된다.

이번 코로나 쇼크를 계기로 종래형 문화의 변혁을 실현하지 못하면 일본 기업의 상대적인 생산성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극히 일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양극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일본 사회 전체에 있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 6. 일본이 코로나 사망자를 과소신고했을 가능성은 있는가? (Newsweek, 2020.4.21)



사진 1) 출처: REUTERS, 타국과 비교해 일본의 사망자수가 극히 적은 것에 의심을 부르고도 있다

<정부가 사망자 수를 적게 보이고 싶은 동기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를 숨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는, 일본에서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4 월 20 일에는 1 일의 사망자가 20 명이 되었습니다. 최신 NHK 숫자에 따르면 누계 248 명(크루즈선 승선자 제외)으로 되어 있습니다.

### ● 프랑스 TV 코로나피자 사과... 각지 패러디송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이 숫자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지난주는 매일 200 명 이상의 사망이 보고되었고, 뉴욕주에 이르러서는 하루에 600~700 명이라는 페이스를 보였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가 공개한 코로나 관련 포털에 따르면 사망자 수 누계와 동시에 인구 10 만 명당 사망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최신 숫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벨기에 사망자 5683 명(인구 10 만명당 49.75 명)
- ▼스페인 사망자 2 만 453 명(인구 10 만명당 43.77 명)
- ▼이탈리아 사망자 2 만 3660 명(인구 10 만명당 39.15 명)
- ▼프랑스 사망자 1 만 9744 명(인구 10 만명당 29.47 명)
- ▼영국 사망자 1 만 6095 명(인구 10 만명당 24.21 명)
- ▼미국 사망자 4 만 661 명(인구 10 만명당 12.43 명)
- ▼일본 사망자 236 명(인구 10 만명당 0.19 명)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감염 당초보다 WHO 라는 장에서 각국의 전문가가 논의해 온 것처럼, 확대를 늦추는 것은, 그만큼 시간의 여유가 생겨 의료 현장에서의 대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늦출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일 향후의 감염 확대가 걱정된다고 해도, 현시점에서의 사망자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역산한 중증자수도 감염자수도, 구미와 비교하면 한정적인 숫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염려되고 있는 시중 감염의 확대라고 하는 것도, 일본으로서는 3 월 중순 이전과 비교해 위험한 레벨이기는 해도, 구미와 비교하면 2 자리수 이상 낮다고 하는 것은, 피크의 억제나, 중국(후베이성 이외)과 같이, 조기에 거의 완전한 수습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 <뉴욕에서 다수 발견된 '재택사'>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망자수에 "숨겨진 숫자"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의 메일 매거진 "프린스턴 통신"에서, 의료 관계의 독자 분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것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상황으로 '사망자 수를 억제하는 동기'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월까지의 상황에서는, 2020 년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사망자 수를 낮게 보이고 싶다고, 정부나 도쿄도는 부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강한 동기로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의 차별을 무서워해, 혹은 임종이나 장례를 통상 대로에 실시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로, 가족도, 의료 기관도, 또 장의사나 화장장에도, "감염의 가능성은 제로가 아닌" 경우에, "굳이 감염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긴 한데 죽음을 숨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뉴욕시에서는 보험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급차가 부르지 못하고 사망하고 나서 신고하는 "재택사"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그 수가 4000 건을 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망 후 신고가 있고, 구급대가 가서 사망 확인과 사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만, 거기서 양성자가 아닌 것으로 감염 방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고, 경찰이나 소방에서 감염 확대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 <대폭 과소평가 가능성 낮음>

내가 사는 뉴저지의 경우는, 노인 복지 시설에서의 "대량사"에 시설이 대응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어느 시설의 사체 안치소에 17 구의 사체가 수용된 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지사가 격노한다고 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비참한 케이스이지만, 어쨌든 대량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것을 은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입니다만, 만일 "코로나 사망"이 "폐렴 등"의 사망수에 "포함되어" 버렸다면, 거기서 이상치가 나올 것입니다. 한편, 뉴욕의 '재택사'와 같은 영성한 대응은 일본의 경우에는 있을 수 없으며, 만일 감염이 의심되는 사망자가 나온 경우에는 의료기관도 구급, 장의사, 화장터 등은 제대로 된 감염 방지 대책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지방 자치체의 통계를 기다려 사망자 수의 이상치가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것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 만 명당 사망자 수가 0.19 라는 현재의 숫자가 큰 폭으로 과소평가된 것일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만일 무엇인가 강한 동기가 있고, 현장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카운트하지 않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여, 2~3 배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10 배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거도 없이 "그레이 존 사체의 존재"등으로 거론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시점에서는 정부도 전문가 위원회, 혹은 각 도도부현도, 쓸데없이 이 숫자를 자랑하는 일 없이, 위기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7.국민의 목숨보다 돈을 고집하다 늦은 올림픽 연기 판단 (Harbor Business, 2020.4.20)



사진 1) 출처: shutterstock

날이 갈수록 신형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일본. 이제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자속을 요청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지만 완전히 뒷북치기에 그치고 있어 종식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베 정권은 조직위와 도쿄도와 함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왜, 올림픽을 고집해, 뒷 수습으로 돌아섰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21 일 발매의 "월간 일본 5 월호(4 월 21 일 발매)"에서, 올림픽의 무상 자원봉사의 어둠을 그린 "블랙 자원봉사"(카도가와 신서)의 저자인 저술가 혼마 류씨가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 “머니퍼스트” 연기 결정

--- 도쿄 올림픽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혼마 류씨(이하 혼마) : 연기에 따라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머니 퍼스트”의 상업 올림픽 폐해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바로 상업 올림픽의 본질을 폭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결정하는 시기가 늦어진 것도, 연기 후 일정이 내년 여름에 잡힌 것도 모두 돈 사정입니다.

원래 IOC 나 일본 정부, 도쿄도, 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예정대로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단되면 이익과 투자가 모두 물거품이고, 연기해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빠듯하게 판단을 늦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 월 중으로 예정됐던 올림픽 예선 대회는 모두 날아가, 2 월 하순만 해도 국제적으로 올해 개최는 무리라는 암묵적인 양해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도 IOC 는 3 월 17 일에 "개막까지 4 개월 이상 전에 근본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예정을 바꾸지 않을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의 올림픽 위원회와 경기 연맹, 선수들로부터 맹비판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 월 22 일에는 캐나다 올림픽위원회가 "올여름 열리는 올림픽에는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IOC 는 다음 날인 23 일 연기를 포함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4 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비판에 부닥쳐 다음 날인 24 일 밤 바흐 회장과 아베 총리가 통화를 통해 연기를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도쿄 올림픽은 "애슬리트 퍼스트"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최대한 돈에 매달리려고 해, 전세계의 애슬리트로부터 총공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연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만일의 경우에 나온 것은 선수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돈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일련의 중지·연기 소동으로, "머니 퍼스트&애슬리트 라스트"인 상업 올림픽의 본질이 부각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없는 "내년 여름"도 스폰서 사정

--- 연기 결정의 배경에는 미국 최대 방송사인 NBC 의 존재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훈마 : NBC 는 IOC 의 최대 후원사로 2014 년 동계 대회부터 2032 년 하계 대회까지 총 120 억 달러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당연히 IOC 는 NBC 의 뜻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IOC 가 연기를 결정한 지 하루 전엔 NBC 가 어떤 결론이라도 따르겠다는 성명을 발표해 연기를 허용했습니다. NBC 가 연기를 용인한 것은 득도 보지도 않고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셈법입니다. NBC 는 "보험등에서 손실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 연기 후 일정은 "내년 여름"으로 잡혔습니다.

훈마 : 그것도 NBC 의 사정입니다. 예를 들면 대회 조직위의 타카하시 하루유키 이사는 "1 년 미만의 연기는, 미국의 야구나 미식, 유럽의 축구 등 주요한 스포츠 이벤트와 부딪히기 때문에 곤란"이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쿄 올림픽은 NBC 가 돈을 버는 수단이고 최우선적인 것은 NBC 의 의향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NBC 의 비즈니스에 놀아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머니 퍼스트 결과 여러 폐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훈마 : 일본의 경우로 말하면, 결단을 늦춘 결과, 코로나 대책이 늦어진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3 월 24 일 이후 도쿄 시내 감염자 수는 급증했는데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가. 도쿄 올림픽 개최를 예측하고, 감염자수의 발표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있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인명'보다 '돈'을 우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원래 도쿄 올림픽은 폭염으로 선수와 관중, 자원 봉사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위나 도쿄도, 일본 정부의 체질은 코로나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올림픽 경비 4 조엔 돌파

--- 연기로 인해 대회 비용이 더 듭니다.

훈마 : 가뜰이나 도쿄 올림픽에는 막대한 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위와 도쿄도는 대회경비가 1 조 3500 억엔, 그중 조직위와 도쿄도가 각각 6000 억엔, 국가가 1500 억엔을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더 들었습니다. 도쿄도는 6000 억엔의 개최 경비와 함께 8100 억엔의 "대회 관련 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1500 억엔의 개최경비에 가세해 시큐리티 대책등의 "관계 예산"으로서 1380 억엔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은 지난해 12 월 국가의 올림픽 관련 예산 지출이 2018 년까지 6 년간 이미 1 조 600 억 엔에 달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참조: 회계감사원법 제 30 조의 3 의 규정에 의거한 보고서> 즉, 실제 경비는 조직위가 6000 억 엔, 도쿄도가 1 조 4100 억 엔, 국가가 2880 억 엔이며, 이와는 별도로 국가는 올림픽과 연계해 뱅뱅 관계없는 사업을 벌여, 이미 1 조 600 억 엔이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비 총액은 이미 3 조 엔을 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더 연기 비용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조직위는 연기 경비를 3000 억 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간사이 대학의 미야모토 가쓰히로 명예교수는 연기 경비가 4225 억 엔, 연기에 의한 경제 손실은 6408 억 엔으로 시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림픽 경비 총액은 4 조 엔을 돌파하는 것이 아닌가.

--- 이만큼 돈을 들여도 내년 여름에 개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훈마 : 1 년 연기는 사람의 사정으로 결정한 것일 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연기·중지·개최"의 삼택이 "중지·개최"의 2 택이 되었을 뿐, 중지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 코로나가 수습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감염이 확대해 가는 것을 생각하면, 내년의 개최도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소개한 미야모토 교수는 도쿄 올림픽이 중지됐을 경우의 경제 손실은 4 조 5151 억 엔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개최”든 “중지”든 지옥

--- 설령 개최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훈마 : 가뜰이나 도쿄올림픽에는 '폭염'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연기작업'과 '코로나'라는 문제까지 덧붙여지고 말았습니다. 더위 대책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연기 작업과 병행해 코로나 대책도 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더위 대책까지 손을 쓸 수 없게 되어 폭염의 위험성은 지금보다 높아지겠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위험성도 더해집니다. 2020 년보다 2021 년 도쿄 올림픽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 도쿄올림픽은 폭염 연기작업 코로나 등 3 대 정면작전을 벌여야 한다.

훈마 : 거기에 "방사능"을 덧붙이면 사정면 작전입니다. 그러나 삼정면 작전이나 사정면 작전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깐요. 애초에 도쿄 올림픽 개최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일본은 코로나 상황을 보가며 개최 여부도 알 수 없는 올림픽 연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설사 개최할 수 있어도 폭염과 코로나에서 위험천만한 대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한편, 중지가 되면 4~5 조엔 규모의 경제 손실이 나옵니다. "개최"도 "중지"도 일본에게는 지옥입니다.

나는 2 년 전부터 도쿄올림픽을 임팔작전에 빔대 'TOKYO 임팔 2020'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 말이 돼버렸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의해 일본의 자원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일본의 국력이 얼마나 깎이는지. 애초에 올림픽 같은 국가의 명운을 걸어버린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일본의 쇠퇴는 한층 더 가속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쿄 올림픽은 이제 나아가는 것도 지옥, 물러나는 것도 지옥의 망국 올림픽입니다.

## 8. 코로나위기로 관광수요가 순간증발... 여기서 보이는 일본경제의 문제점

(PRESIDENT Online, 2020.4.21)

### ■세계적 이동 억제로 관광업계 큰 타격'

코로나사태가 세계 관광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감염 대책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당장의 경제성장을 희생시켜 사람의 이동을 억누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포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사람의 움직임(동선)을 억제하면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각지의 관광지과 수도권에서는 관광객의 모습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볐던 밀라노 등에서 인기가 사라졌다. 세계 관광 수요는 코로나사태로 순간 증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행사를 비롯해 버스와 철도 등 육운, 공운, 음식, 여관, 호텔, 리조트 운영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실적악화 우려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사진 1) 출처: 시사통신포토. 사람이 드문 도쿄아사쿠사의 카미나리몬 = 2020년 4월 12일, 도쿄도타이토구

관광 수요의 소멸은 우리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변화다. 2012년 12월 이후의 일본 경제에 있어서, 중국, 한국, 대만등에서의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완만한 반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다. 해외로부터의 관광객 증가(인바운드 수요)는, 도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시정해, 지방 창출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해외관광수요에 의존해온 우리나라는 그 경제의 운영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무거운 과제가 될 것 같다.

#### ■전세계에서 사람의 움직임은 언제까지 멈추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관광업계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태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구,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심각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감염으로 4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미국의 저소득층은 충분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 사태가 매우 어렵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에서도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 미국 각국에서 의료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백신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사람의 외출을 제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의 움직임 차단은 장기화될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이르는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어 전 세계 경제활동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수요가 소멸하면서 공급체제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세계 관광업계는 그 전형적이다. 국내든 해외든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이 바이러스를 각지에 퍼뜨린다. 각국은 여행금지 자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 ■핍박하는 기업의 자금회전, 미 보잉에도 공적지원

또 관광업계 이외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수요의 저하, 공급망의 두절로 기업의 수익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많은 기업에서 자금유통이 핍박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기 대기업 보잉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지원을 표명하는 등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기업의 경영체제가 급속히 불안정해지고 있다. 보잉에 관해서는, 새로운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도 높아지고 있어 나날이 세계경제의 하향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의 소득·고용 여건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세계 경제를 지탱해 온 미국에서는,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3월 이후 4주 만에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신청 수는 2200만 건을 돌파했다.

미 FRB 관계자는, 4~6월기에 실업률이 30%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코로나사태에 의해 세계 각국에서 기업 실적, 소득·고용 환경의 악화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은 관광 등 여가예의 지출을 감소시킨다.

### ■한국 관광객 급감한 규슈 온천명소

그 중에서, 우리 나라의 관광업계등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영이 급속히 악화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4월 10일 현재 신형 코로나 관련 파탄 건수는 51건(절차 준비 중에도 포함)에 달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음식과 관련이 많다.

배경 중 하나는 중국, 한국, 대만 등의 방일자가 크게 감소해 인바운드 수요가 증발한 바 있다. 관광청에 의하면, 2019년의 방일 외국인수는 3188만명이었다. 그 중, 한대중韓台中(홍콩 포함)으로부터의 일본 방문자수가 70%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일 관계 악화와 중국 경제 성장의 한계로 이들 지역의 일본 방문자 수 증가 속도에 둔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방문객들의 위축은 컸다. 지난해 여름철 이후 규슈 온천지 등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료칸 경영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 ■미래 불안으로 대기업 채권발행 지연될 수도

그 위에 코로나사태가 겹쳐,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말았다. 코로나사태가 글로벌화에 의존한 경제 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해도 좋다. 관광청이 발표한 2월의 방일 외국인수(추계 베이스)에 의하면, 중국으로부터의 방일자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87.9%감소로 크게 감소했다.

그 요인으로, 우한시를 중심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해외 단체 여행의 판매를 금지한 것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 같은 달 한국 방문객 수는 79.9%, 대만은 44.9% 감소했다.

게다가 3월, 출입국 관리 통계(속보)에 의하면, 정부의 입국 거부 대상국의 확대등에서 외국인 신규 입국자는 전년동월부터 9할 이상 감소했다. 또한 출입국관리 통계에는 크루즈선 내방객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의 왕래가 끊겨, 관광 뿐만이 아니라, 항공 대기업이나 인재 파견등을 다루어 온 우리 나라 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도 여객수요 증발로 항공업계는 사실상 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시장 참가자의 리스크 허용도는 저하되고 있다. 국내 사채시장에서는 대기업의 채권 발행이 연기되는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 ■앞으로는 자국내 자원을 이용한 경제 운영 필요

따지고 보면 코로나사태의 심각화로 우리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해외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관광 수요의 고조는, 근년의 일본 경제를 지탱한 요소 중 하나였다.

리먼 쇼크, 동일본 대지진을 거쳐, 2012년 12월부터 우리 나라의 경기는 회복 국면으로 이행했다. 그

상당 부분이 국내의 자율적인 움직임보다 해외의 요인이다.

인바운드 수요 외에 "중국 제조 2025"에 근거하는 중국 공장의 자동화(FA)에 관한 기술이나 공작기계 등의 수요, 노동시장의 회복에 의지한 미국의 경기회복, 저금리 환경 하에서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에 의한 자산 효과 등이 우리 나라의 경제를 지지했다.

한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각국은 자국 내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WTO(세계무역기구)는 2020 년의 세계 전체의 상품 무역량이 전년보다 32%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요인에 힘입어 온 우리로서는 경제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다.

또, 도시봉쇄 등에 대한 불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식료품의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 감염으로 인해 농사일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해 곡물 등의 공급난이 표면화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체제에 기초해 온 세계 경제는, 그 반동에 직면하고 있다.

#### ■ 세계적으로 수요 위축되면서 공급 늘리는 중국

중국에서는 감염이 소강상태에 빠지면서 기업들의 조업이 회복되고 있다. 철강 등 기초자재에 스마트폰 생산도 급속히 반등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의 공급 증대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해외 요소에 의지해 온 우리 나라에서는, 여행을 시작으로 하는 관광 업계 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가 축소 균형으로 향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땅값 상승 등 인바운드 수요에 힘입은 지방경제의 회복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향후, 우리 나라의 감염 수습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도 읽을 수 없다. 민간의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여론의 찬동을 얻으면서, 감염의 봉쇄 대책을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9. 멈추지 않는 “도쿄일극집중”으로 보는 강렬 리스크 (동양경제온라인, 2020.4.21)

도쿄도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연일 100 명이 넘는 기세로 계속 늘고 있다.

홋카이도에서의 감염 증가가 뉴스가 되고 있던 2 월 하순, 친구인 삿포로 거주 의사가 "홋카이도가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지금 뿐. 언젠가 도쿄에서도 많은 감염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었지만, 확실히 그대로 되었다. 도쿄도는 구시읍면마다의 감염자수(거주지별 감염자수)를 공표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세타가야구로 도내 전체의 1 할 가깝다. 구시읍면에서 인구가 최다(약 92 만명)인 구이다.

#### ■ 인구밀도 매우 높아

인구 대비로 따지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향후, 도쿄도의 감염자수는 어디까지 증가해 갈 것인가. 뉴욕과 같이 단번에 폭발적 증가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만, 감염자 급증의 사태를 앞에 두고 재차 도쿄 일극 집중의 무서움을 실감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은 아닐까.

도쿄도의 인구는 3 월 1 일 현재 1395 만 명. 면적은 2194km<sup>2</sup>. 인구밀도는 km<sup>2</sup> 당 6359 명. 분쿄구, 타이토구, 아라카와구, 토요시마구, 나카노구는 2 만명 이상이라고 하는 초과밀적이다. 예를 들어 4 월 10 일

첫 감염자가 확인된 돗토리 현은 인구 약 55 만 4000 명, 면적은 3507km<sup>2</sup>. 인구밀도는 약 158 명이다. 돗토리 현보다 좁은 도쿄도에 돗토리 현의 25 배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1) 출처: PIXTA. 초과밀도시·도쿄의 하이리스크를 현재화시킨 신형코로나바이러스. 일극집중의 시비를 금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쿄도의 일극집중 모습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데이터로 검증해 보자. 총무성의 주민 기본 대장 인구 이동 보고에 의하면, 2019 년 한해 동안 도쿄도내로의 전입자는 46 만 6849 명, 전출자는 38 만 3867 명으로 8 만 2982 명의 전입 초과. 전국 1 위다. 전년이 7 만 9844 명의 전입 초과였으니 일극 집중의 가속이 그치지 않는다.

주간 인구는 한층 더 증가해 1592 만명이나 된다(2015 년 국세 조사=상주인구는 1352 만명). 주야간 인구비율(상주 인구 100 명당 주간 인구의 비율)은 117.8. 23 구 지역은 129.8 로, 상주인구 5 만 8406 명인 치요다구에 이르러서는 주간인구가 85 만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주야간 비율은 1460 이라는 터무니없는 수치가 되어 있다.

타현으로부터 도내로 통근, 통학하고 있는 사람은 약 290 만명. 도내에 사는 통근, 통학자(679 만명)를 합하면 약 970 만명이 매일 어떠한 형태로든 이동하고 있다. 통근통학 대이동이 매일 벌어지는 것이다.

경제활동 집중도 돋보인다. 인근의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 3 현을 더한 도쿄권으로 보면, 인구는 약 3677 만명으로 일본 전체의 약 3 할이 밀집해 있다.

내각관방 국토강인화추진실이 2019 년 9 월에 정리한 자료("도쿄 일극 집중 리스크와 그 대응"에 대해)에 의하면, 취업자수 1635 만명은 전국 쉼어 27.7%(2015 년). 자본금 10 억엔초과의 대기업수는 3056 사에서 동 62.0%(2017 년). 역내 총생산(GRP) 명목은 180 조엔 남짓으로 동 33%(2015 년), 연간 출하량 4 억 8100 만 톤으로 동 19.0%(2015 년)가 되고 있다.

■과밀도시 도쿄, 통근지옥-물가 고공행진

세계 유수의 초과밀도시에서의 일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선은 통근러시. 국토 교통성의 도시 철도의 혼잡율 조사(2018 년도)에 의하면, 3 대 도시권 주요 구간의 평균 혼잡율은 도쿄권 163%, 오사카권 126%, 나고야권 132%다.

도쿄권에서 목표 혼잡율 180%를 넘고 있는 것은 11 개 노선. 도쿄 지하철 토자이선 199%, JR 동 일본 요코스카 선 197%, 이 소부 완행 선의 196%, 이동해도선 191%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토자이선-코바역-몬젠나카초역은, 피크 시간대(7 시 50 분 8 시 50 분)에 10 량 편성의 전철이 27 개 달리고 있다. 수송력 3 만8000 여 명에 수송인원은 7만6600명을 넘어 혼잡률 199%의 일본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 수준도 일본 최고다. 소매 물가 통계 조사(구조편) 2018 년에 의하면, 도도부현별의 물가 수준의 종합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도쿄도에서 104.4. 가장 낮은 미야자키현은 96.0 과 비교해 8.4 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수준적으로는 도쿄도가 미야자키현보다 8.8% 높다고 하는 것이 된다.(높은 지수-낮은 지수)×낮은 지수×100].

물가가 가장 비싼 것은 주거비. 도쿄 도의 지수는 무려 133.0 으로 월등히 높다. 가장 낮은 에히메현은 82.7 이므로, 그 차이는 무려 약 50 포인트. 물가 수준으로 보면 도쿄는 에히메보다 60%나 비싼 셈이다.

그렇다면 가처분 소득은 어떤가. 총무성의 가계 조사 연보(현청 소재지별 데이터=2018 년)에 의하면, 1 세대 당 1 개월간의 수입과 지출(근로자 세대)의 가처분 소득 전국 평균은 45 만 5125 엔. 도쿄도구부는 51 만 9217 엔으로 전국 5 위. 1 위 가나자와 시는 53 만 5451 엔으로 2 위 후쿠이시, 3 위 도야마시다. 물가가 최고인데도 가처분소득은 5 위밖에 안 되는 것이다.

또 매년 화제가 되는 대기 아동 문제. 도쿄도의 대기아동 수는 2019 년 4 월 1 일 현재 3690 명으로 전국 1 위다. 대기아동율은 1.19 로 전국 6 번째 높다. 육아 환경도 어렵다.

과밀 도시·도쿄의 생활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소개했지만, 심각한 것은 재해 발생시에 초래되는 대단한 피해다.

지금의 코로나 감염 확대도 물론 대재화大災禍. 감염 확대, 장기화에 의한 피해 상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월 15 일에 후생 노동성 클러스터 대책반의 추계가 밝혀졌지만, "전혀 대책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는 전제 조건부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치의 판단은 어렵다.

앞서 소개한 '도쿄 일극 집중 리스크와 그 대응에 대해'의 자료에는 도쿄 일극 집중의 재해시의 리스크로서 중앙방재회의가 정리한 '수도 직하지진의 피해 상정과 대책에 대해(최종보고)'의 내용을 1)인구나 자산 집중에 의한 리스크, 2)수도 중추 기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의 리스크, 3)지역·지반의 취약성에 의한 리스크의 3 가지로 분류하여 검증하고 있다.

■재해시 리스크

주된 피해상정(수도권 전체)을 살펴보자.

- 방대한 건물 피해와 인명 피해: 전과 및 소실 건물 동수(최대) 61 만여 동, 사망자 수 최대 1 만 6000 여명~2 만 3000 여명
- 귀가 곤란자 혼란: 귀가 곤란자 수 약 640 만명~800 만명
- 대피소 부족: 2 주후 대피자 수 약 720 만명(이 중 대피소 외 약 430 만 명)
- 전기, 가스등의 이용 정지: 1 주일 후의 전기 공급 능력 약 2800 kw(피크 수요 대비 52%), 1 주일 후의 가스 공급 정지 호수 약 125 만 7000 호
- 도로철도 피해로 인한 교통혼란: 간선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 및 장기간의 철도불통 상태 지속 우려
- 기업 본사 기능 정체에 따른 전국적 경제활동 저하

-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끊김으로 인한 전국 생활에서 경제까지 광범위한 영향
- 하네다, 나리타 공항 동시 재해로 해외 및 국내 항공 수송 영향
- 금융중추기능의 혼란: 도쿄증권거래소의 일시적 거래정지 등
- 국제적 신용경색으로 인한 해외기업이전: 일본시장 철수와 해외자금조달비용 상승 등

- 해발 0m 지대 등 저지대 고조, 해일, 홍수로 인한 장시간 침수 영향

(※수도권 재해로 인한 피해액 추산)

- 중앙방재회의 시산: 수도 직하지진 피해액 추산 95.3 조엔
- 토목학회 시산: 거대 재해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 효과를 추계한 경제 피해 추계
  - 수도 직하 지진 (20 년) 731 조엔
  - 도쿄만 거대 고조(14 개월)46 조엔
  - 도쿄 아라카와 거대홍수 (14 개월) 26 조엔

수도 직하지진은 정부 지진조사위원회가 앞으로 30 년 내 70%의 확률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 규모 7 의 강진으로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재회의의 피해 상정에는 건물을 내진화해 화재 대책을 철저히 하면 인적 피해를 10 분의 1 로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극 집중의 고위험 자체는 변함이 없다.

4 월 16 일,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의 대상 지역을 전 도도부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럴 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과 같은 감염증 확대시에 대지진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어 버리는가.

최근 수도권을 포함해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수속이 안보이는 코로나 쇼크는, 초과 밀도시·도쿄의 하이리스크를 표면화시켰다. 지금은 감염 확대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해서, 일극 집중의 시정은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이다.

야마다 미노루 : 저널리스트

## 10. 코로나 위기의 일본에서 본 “전례주의”의 병리, 구일본군의 실패를 되풀이할까 (DIAMOND, 2020.4.22)

- 코로나 위기에서 보인 ‘플랜’ 변경 과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기능하지 않는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즉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 방지 대책의 전문가인 이와타 켄타로씨는, 4 월초순의 단계에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이 이만큼 증가해 시중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하면, 클러스터 대책에서는 따라잡지 못하고, 검사수를 늘리고, 우선 순위를 매기면서도 의심의 있는 사람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다만, 이것은 누구라도 불안이 있는 사람을 모두 검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후 조금씩 검사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검사 체제는 갖추어지지 않아 충분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타씨가 지적하듯이, 일본의 조직은 “플랜 A”가 기능하지 않게 되었을 때의, “플랜 B”에의 이행이 지극히 어려워, 다음의 전략적 국면으로의 이행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조직행동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 조직이 ‘전례답습주의’에 빠지기 쉬운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실한 국민성 때문에 방법이 자기목적화(그 방법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되기 쉬운 것, 각 부처나 암묵리에 무류주의(실수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매니지먼트)에 입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책임회피 편견의 강점이 있는 것 등이 그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1) 출처: PIXTA. 당초 정해진 플랜도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매몰비용에 사로잡혀 피해를 키운 태평양전쟁 하의 일본군

방침 변경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일본은, 일찌기 일본군이 빠진 "실패의 본질" 그 자체로, 제 2 차 세계 대전 말기 전국의 악화에 따른 전략 플랜을 변경하지 못하고, 피해를 확대시킨 모습과도 겹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군은 물가에서 적을 격멸하는 "물가작전"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륙을 시키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또 전력적으로 이기고 있다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에서는 압도적 전력을 가진 미군과 싸우는 가운데 물가에 배치된 병력은 압도적인 화력에 의한 폭격, 함포사격에 의해 작전 초기 단계에서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본영은 단호히 상륙을 저지하라며 물가작전을 계속했고, 더 큰 피해를 불러서 귀중한 병력을 쓸데없이 소모시켰습니다.

왜 그런 부조리가 일어났을까요? 매몰 비용(플랜의 변경, 중지를 했을 때 되돌릴 수 없다고 여겨지는 비용)의 관점에서 말하면, 여기서 방침을 바꾸면 지금까지의 전략이 틀렸다고 비를 인정하게 되어, 그 작전에 의해 죽은 병사를 헛되게 죽게 해 버리게 된다, 즉 매몰 비용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책임 회피 바이어스"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이론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사를 설득하기 위한 "거래 코스트"는 방대하게 되고, 게다가 들어 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지금까지 군에서 쌓아 올린 신뢰도 실적도 없어지는(매몰 코스트화하는) 상황에서, 진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드물게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사람은 부하마다 격전의 최전선에 보내짐으로써, 제대로 진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직에서 없어지는 "역도태"가 일어나, 방대한 수의 목숨이 헛되이 없어져 간다고 하는 부조리가 계속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황이 악화되기만 했던 1944 년, 본토 방위의 최후라고도 할 이오지마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가사와라 방면 최고 지휘관인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육군 중장은大本영의 지령을 따르지 않고, 물가 작전을 내지지구전에 의한 철저 항전으로 변경해, 미군을 맞이할 수 있도록 터널을 파 게릴라전을 전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절망적인 병력차로부터 5 일간에 끝날 것으로 보여졌던 이오지마 전투는,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미군이 일본병의 사상자수를 웃도는 전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 연재의 제 2 회에서 소개한 "방법의 원리"-방법의 유효성은 목적과 상황에 의해서 바뀐다--에 따라서 말하면, 구리바야시 중장은, 압도적인 전력차가 있다고 하는"상황"을 근거로 했을 때에, 본토 방위라고 하는"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례나大本영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목적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 실시한 것입니다.

#### ● 전례주의가 84 명 사망 참사로 이어졌다

9 년 전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전례주의에 의해 초래된 비극은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이나 교원의 합계 84 명이 해일로 죽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립 오카와 초등학교에서는, 3 월 11 일, 교장이 부재중인 가운데, 교감이 의사결정을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진 재해 이틀 전, 미야기현에서는 진도 5 미만의 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때에는 교정으로 일시 피난은 했지만 고지대로의 2 차 피난은 하지 않았습니다(생존 아동에의 인터뷰에서는, 그대로 "쉬는 시간"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즉, 쓰나미 주의보가 나왔을 때의 교장의 판단은 교정 대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나미 경보 발령 시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카와 초등학교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지침이 되는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지진 매뉴얼을 복제한 것으로, 쓰나미 때의 2 차 피난처는 '인근 공터나 공원'으로 되어 있어 고지대에 피난한다는 방침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교감외, 교무 주임, 안전 담임이라고 하는 톱 3 의 선생님은 "산으로 도망치는 편이 좋은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하는 증언이 있어, 산은 안된다라고 한 교원은 1 명뿐이었습니다. 스쿨 버스 운전사는 버스로 도망치는 편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도 보호자도 산으로 도망가자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교장이 제시한 전례는 교정 대기였습니다. 또, 피난 방침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양한 주장의 톱바구니에, 1 분만에 도망갈 수 있는 뒷산을 눈앞에 두고 교정 대기를 계속해, 50 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일이 눈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결과 84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례를 따르면 실패해도 "전례에 따랐을 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전례에 없는 일을 할 때나, 플랜(방침) 변경을 할 때에는 책임이 생깁니다. 교감 입장에서 보면 교장 부재 중 교정 대기의 전례를 뒤집고 뒷산에 올라갔다 누군가 넘어져 다치면 자기 책임이 됩니다. 그러한 "책임 회피 바이어스"가 의사결정의 정체를 초래한 하나의 요인에 있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위기 관리에서는 전례에 얽매음으로써 말 그대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본 전례주의는 통하지 않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 대책은, 청결하고 위생 환경이 좋고, 높은 협조성을 갖춘 일본인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어떻게든 감염폭발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이 일본인의 특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 일본의 조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관료 조직을 필두로, 전례주의, 무류주의, 그리고 책임 회피

바이어스가 강해,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기능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서투릅니다.

예를 들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4 월 13 일의 참의원 결산 위원회에서, "여러 나라의 예를 봐도, 사업자에 대한 휴업 보상은 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에서도 눈에 띄지 않고, 우리로서 할 생각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발언. 이것으로부터, 전례주의를 근거로 해 휴업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사실은 해외에 얼마든지 전례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의 논점은, "전례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납득해 버리는, 일본인의 전례주의 바이어스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례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각국 모두 전례가 없는 미증유의 사태에 대해서, 전례가 없는 시책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것은, 일본이 발본적인 시책을 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서는, 이러한 일본의 "전례"에 사로 잡히는 것으로, 신속히 대담한 시책을 내세울 수 없는 자세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본의 "큰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조직이 자랑으로 여기는 수속주의, 전례주의, 습도주의, 형식주의가 가장 통용되지 않는 상대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 ● 플랜 변경 저항 줄이려면

그럼 원활한 플랜 변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올바른 방법은 없으며, 상황과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은 바뀐다는 '방법의 원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플랜 A 가 기능하지 않았던, 혹은 상황이 바뀌어 기능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의 플랜 B, 플랜 C, 플랜 D 도 미리 준비해 두고, 그것들을 세트로 작전을 입안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a 에서 기능하고 있던 플랜 A 가 상황이 b 가 되었을 때 기능하지 않게 되면 그 상황에서 기능하는 플랜 B 로 이행하면 됩니다. 방법의 원리에 따르면 상황과 목적에 따라 방법의 유효성은 달라지므로 플랜 A 나 전임자를 부정할 필요가 없으며 플랜 A 에 들인 비용(노력, 비용, 시간)이 매몰 비용화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플랜 B 로 이행합시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으로써 플랜 A 가 잘 되지 않게 되었을 때의 각처와의 "조정 코스트"가 최소화되고, 상황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신속히 한층 더 유효한 방법으로 시프트 하기 쉬워집니다.

이와 같이 플랜 A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이나 진전에 따른 플랜 B, 플랜 C, 플랜 D 와 위스트 시나리오를 포함한 사태를 상정해 미리 준비해 두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는 '방법을 바꾸는'것 만으로 좋습니다. 전임자나 이전의 플랜의 부정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기 어렵고, 또 플랜 A 에 들어온 코스트를 낭비해 버린다고 하는 "매몰 코스트"에 사로 잡힌 플랜 변경에의 저항도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단, 현상은 항상 상정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 나 C 나 D 가 기능하지 않을 때는 어디까지나 방법의 유효성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방법의 원리를 축으로 하여 그 상황을 타개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관리에서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적절한 의사결정을 거듭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방법의 원리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방법의 선택, 창출, 실사야말로 위기 관리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 11. “산소흡입기 부착 자본주의”가 이끄는 코로나 위기 (동양경제 온라인, 2020.4.21)



사진 1) 출처: PIXTA. 코로나위기로, 각국 경제정책은 전시통제경제와 같이 변모했지만...

코로나 위기로 각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느 나라나 공적 부문의 역할이 더 큰 경제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사태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저서 "부국과 강병: 지정 경제학 서설"에서, 이번 사태에 앞서 포스트-세계화로 향하는 정치·경제·군사를 종합무진 풀어낸 나카노 타케시씨가 논한다.

### ■ 전시경제와 비슷하나 다른 것인가

이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이 일으킨 위기(코로나 위기)로 인해 각국의 경제정책은 전시통제경제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전시하의 대통령이라고 평가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것은 전쟁이라고 연호했다.

실제로 각국에서는 군이 동원되고 있고, 병원은 야전병원 양상을 띠고 있다. 외출 제한은 마치 전시하의 계엄령과 같다.

미국 정부가 GM 에 인공호흡기를 증산하도록 명령한 근거법이 된 것은 한국전쟁 때 제정된 국방생산법이다.

IMF(국제통화기금) 블로그는 4 월 1 일 "전시에는 군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특례조치에 의해 에센셜 서비스가 확보된다. 이번 위기에서 사태는 더 복잡하지만 공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점은 같다"고 말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 대한 경제정책은 전시경제에 매우 가깝다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가 크게 다르다.

첫째, 전시경제에서 정부는 국민을 전쟁이나 군수공장으로 동원한다. 거기에 거대한 군사 수요가

발생하는 한편으로, 물자나 노동자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경향이 생겨, 실업률은 떨어진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에서는 정부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도록 국민을 동원한다. 따라서 일부 의료물자 등에서는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급감에 따른 수요 부족이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킨다. 당연히 실업률은 증대한다.

이처럼 수급 균형이라는 관점에서는 코로나 위기하의 경제는 전시경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황(디플레이션 불황)의 양상을 띤다. 게오르기예바 IMF 전무이사가 코로나 위기를 세계 공황 이래의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고 말한 대로다.

단, 공황 시에는 고용 창출이나 휴업 보상·생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역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전시 경제와 같다.

코로나 위기와 전시의 차이 중 둘째는 적의 소재다. 전시의 경우는, 적은 타국이며 또한 명확하다. 이것에 대해서, 코로나 위기의 경우는, 적은 보이기 어려운 바이러스인 데다가, 같은 국민으로부터 감염되는(공격을 받게 된다) 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경증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염자가 자각하기 어렵고, 감염 억제에 위한 협력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

즉, 공통의 적이 명확한 전쟁의 경우와 달리,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이, 보다 어려워지는 것이다.

단, 국민이 자발적인 감염 억제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면 국민에게 행동 변용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하는 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는 역시 전시경제와 비슷하다.

#### ■숨페터가 예언한 대전환

이처럼 전시경제와 코로나 위기하의 경제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면서도 IMF의 지적대로 공적 부문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팬데믹의 수습은, 현시점에서는 전망되지 않고, 장기화의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만일, 장기화하면, 각국의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지프·A·숨페터가 예언한 대전환이 마침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대전환이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다.

무엇을 바보짓이라고 일축하기 전에 먼저 숨페터가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라는 뜻을 이해해야 한다.

숨페터에 의하면, "자본주의"란 "생산 수단의 사유" "사적인 이익과 사적 손해 책임" "민간은행에 의한 결제 수단(은행 어음이나 예금)의 창조"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민간은행에 의한 결제 수단의 창조"이며, 이것이 부족한 사회는 "상업 사회"이어서도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다.

한편, "사회주의"에 대해서 숨페터는 단지 "어떤 공적 권위가 생산 프로세스의 관리를 실시하는 제도"라는 정도로 밖에 정의하고 있지 않다. 사유재산 부정이니 계획경제니 하는 과거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공적 부문에 의한 관여가 큰 경제 시스템을 가리켜, 널리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숨페터는 제 2 차 세계대전 후의 변화를 보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확실히, 전후의 경제 시스템은, 그것을 "사회주의"라고 부르든 별개로, 케인즈주의적 거시 경제 운영, 노동 규제 강화, 복지 국가 등, 국가의 경제 관리가 전쟁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화되었다.

왜 제 2 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가의 경제관리가 크게 강화됐는가. 그것은 전시경제의 잔재다. 총력전에 있어서는 국가는 국민과 자원을 전쟁을 위해 총동원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경제 관리가 각별히 강화된다. 문제는 그 경제관리가 전후에도 잔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의 규모는 전쟁 중 군사비의 팽창으로 비대해진다. 그런데, 전후, 군사비는 축소해도, 재정 규모 전체는 전쟁 전의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이 현상을 치환효과라고 한다. 실제로, 1929년 시점의 영.불독의 GDP 대비 중앙정부 지출은 15% 정도, 미국은 3%에 불과했지만, 전쟁을 통해 1962년 시점에는 영.불이 약 25%, 독일이 약 20%, 미국에 이르러서는 약 18%로 약 6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는, 각국 모두, 전시 경제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치환효과가 작용한다면 코로나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국가경제관리는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유럽에서는 정부 지출이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가 적지 않았고 프랑스 등은 55%를 넘었다. 참고로 미국은 약 35%, 일본은 약 37%이다. 코로나 위기에서는, 이것에 가세해 한층 더 GDP의 1~2할 규모의 경제 대책이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 치환효과가 작용한다면 GDP의 절반이나 그 이상을 정부지출이 떠받치는 경제가 출현하게 된다. 그런 경제는 숨페터로 치면 거의 사회주의일 것이다.

#### ■ 재정정책 없이 제 기능을 못하는 자본주의

코로나 위기에 더해, 또 하나, 사회주의화로 향하는 중요하고 장기적인 트렌드가 있다. 21세기 각국 경제는 로렌스 서머스가 말한 장기 정체에 빠져 있다. "장기 정체"란, 투자 기회가 부족하고, 저금리와 저성장이 지속하는 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위기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정체는 더욱 심각하고 장기화될 것이다.

그런데, 저금리나 디스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에 빠지면, 민간은행에 의한 신용 창조는 곤란하게 된다. 여기서, 숨페터가,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요소는 "민간은행에 의한 결제 수단의 창조"에 있다고 하고 있던 것을 상기해 주었으면 한다. 그 민간은행에 의한 결제 수단 창조가 저금리나 디플레이션에 의해 저해된다는 것은 경제시스템이 자본주의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서머스는 장기 정체 아래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하에서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없으면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이처럼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게 된 자본주의를 숨페터는 산소흡입기가 달린 자본주의라고 불렀다. 산소흡입기를 붙인 자본주의란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있는 빈사의 자본주의 모습이다. 코로나 위기로 자본주의에도 산소흡입기가 필요해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부언을 하자면 나는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 위기하의 전시경제와 그 이전의 경향인 장기 정체 두 가지를 감안하면 앞으로는 공적 부문의 역할이 더 큰 경제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일 뿐이다. 본고는 숨페터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제의 구조나 특징을 논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상의 이유로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공적 부문의 역할을 굳이 축소한다는 선택을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산소 흡입기 없이 자본주의가 계속 기능할지는, 보증이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뿐이다.

## 12. 코로나사태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계기인가? “중앙집권형 공업사회”에서 “지방분권형 생명사회”로 (The PAGE, 2020.4.25)

정부는 4월 16일, 도쿄 등 먼저 긴급사태 선언의 대상으로 한 7도부현 이외에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선언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선언 후는 도도부현 지사가 긴급 사태 조치를 강구하는 구조 때문에, 각 지사의 수완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건축가로, 문화론에 관한 다수의 저서로 알려진 나고야 공업대학 명예 교수·와카야마 시게루씨도

"국가보다 지방 자치체가 주역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일본사회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카야마씨가 독자적인 시점에서 논합니다.



사진 1) 출처: The PAGE, 감염폭발의 중대국면이라고 호소하는 코이케유리코 도지사

### 신형 코로나와의 싸움은 국가보다 자치단체가 주역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체를 이 정도로 실감한 적은 없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투쟁은, 나라보다 지방 자치체가 주역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두각을 나타낸 것은, 도쿄도의 코이케 유리코 지사의 움직임 속도다. 올림픽 문제에서는 전면에 나서기를 꺼렸던 듯하지만 연기가 결정되자마자 록다운이란 말로 선수를 치고 국가에 긴급사태 선포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보상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직 캐스터인 만큼 발신력은 발군이다.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선거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 도민도 국민도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 준다면 무슨 목적이든 상관없는 것이다.

또 홋카이도의 스즈키 나오미치 지사는 재빨리 독자적인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도내를 긴장시켰다.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 "#요시무라 잠 좀 자라"가 SNS 로 트렌드에 오를 정도로 바쁜 일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도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보상책을 내놓는 단체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아베 총리의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일본식"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대책"의 전문가는 애쓰고 있지만, 이미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고 있는 것 같다. 겨우 내놓은 감이 있는 긴급사태 선언도 강제력이 없는 자숙요청에 불과하고 휴업보상은 없으며 급부금은 얇치락뒤치락이다. 스가 관방장관과의 불화설이 전해져 아무래도 총리의 모습에 고독한 그림자가 감돌고 있다.

### 앞으로의 일본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라는 개념은 유럽의 도시와 시민의 역사를 고려한 민주주의 이념이기도 하고 일본의 집권적 국가주의를 약화시키는 GHQ 의 목적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본의 지자체는 조레도 대부분 횡적이며, 보조금 등을 통해 중앙 관청의 강력한 지도 아래 놓여져 있었다. 즉 '지방자치'도,

'지방분권'도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다. 특히 수도권 주민은 매일 도심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아 지자체에 대한 귀속 의식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의 대처에 대해 지자체의 힘, 그리고 수장의 힘이 실체로서 전제되는 것 같았다. 거꾸로 보면 문서조작 문제 등으로 드러난 중앙관청의 도덕적 상실과 누적 적자에 따른 재정난 등으로 국가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래 지속된 정권의 일강구조가 도마에 올랐는지 모른다.

### 지사나 시장 같은 단체장은 직선으로 뽑힌다.

그만큼 총리보다는 국민의 지지에 직결돼 있다. 그 수장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수도권, 칸사이권, 추우쿄권으로 제휴해 자주적인 정책을 취하면, 앞으로의 일본을 운영하는 행정의 주력이, 중앙으로부터 지방(대도시 중심이라고 해도)으로 시프트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와 같은 이상론으로서의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아닌, 우선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며, 또한 삿포로와 후쿠오카가 원격의 중심이 되어, 나아가 주변의 자치체로 확대된다. 거기에서 관청에 인사권을 빼앗겨 일에 대한 열의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스미가세키의 관료를 끌어들이어 재원 이양과 법제도의 변경을 추진한다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영국, 독일, 미국은 연방 국가이며, 19 세기 이래의 장기적인 스펠로 보면, 그러한 나라가, 중앙 집권국보다 유연하게 운영되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일본사에서도 가마쿠라시대, 무로마치시대는 연방제와 같은 것으로 전국시대는 각지의 다이묘가 독립국처럼 행동했다. 도쿠가와 가문은 제영주를 교묘히 통제하였지만 분권적이었다.

지금의 현 단위로는 작기 때문에, JR 나 전력회사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지금의 일본을 갑자기 연방제로 만들겠다는 비전은 아직 현실적이지 않다. 또 때로 "도주제道州制"도 외치지만, 중앙과의 관계를 바꾸지 않고 자치체의 규모를 키워도 의미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형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방침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자치체가 제휴하고, 스스로 일본의 정치를 바꾸어 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선결일 것이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라고 하는 대도시권의 수장이 모두, 국정에 대해서 나름의 변혁 의욕을 가지는 인물인 것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 중앙집권적 공업사회로부터의 탈피

현재의 일본은 제조에 특화된 "공업사회"로서 정밀화되고 사회가 성숙하여 제도가 복잡화 되어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족쇄가 되어 인터넷을 기축으로 하는 "정보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빛나는 실적을 올린 우수한 기술자가, 큰 패러다임(광범한 과학이나 기술의 베이스가 되는 이론과 시스템) 전환에 놓여진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캐시리스화도, 텔레워크화도, 온라인 교육도, 구호뿐으로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상사가 남아 있으면 잔업을 하고, 유급휴가는 꿈꿀 수 없다. 변함없는, 신규 졸업자 일괄 채용, 종신고용, 연공서열. 회사에 있는 것만으로 일을 한 느낌이 드는 "집합의 안심"이 있어, 고독하게 도전을 계속하는 "개인의 도전"이 약하다. 공업입국의 성공에 안주했던 탕인지 사회제도 마디가 녹슬고 있는 듯하다. 메이지 이래의 중앙 집권적 공업 사회가 유통 기한 만료가 되고 있다. 정보사회로의 제도전환 이른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려면 낡은 습관을 버리고 제도의 녹을 없앨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을 떠나 사회주의 굴레를 벗어난 동유럽의, 남쪽의 불가리아에서 북쪽의 에스토니아까지 비교적 작은 나라가 정보산업의 영웅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공업사회가 되지

못한 작은 나라가 시대에 맞춰 사회제도를 기민하게 대응하고 우수한 두뇌노동자를 정보산업으로 집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는 언제나 신선한 도전자에게 기회를 주는 법이다.



그림 1)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 'Society 5.0'의 이미지

### 새로운 사회는 지방분권에서

근대 공업사회의 챔피언이었던 일본이 큰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름의 제도전환이 필요하다. 도전의 주체를 지금과 같은 국가와 대기업이라는 규모에서 지자체와 벤처기업이라는 규모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 인터넷 자체가 중심을 갖지 않는 그물 조직이라는 의미로, 말하자면 분권형의 발상이다.

게다가 향후의 세계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시사하는, 과잉한 글로벌리즘으로부터의 전환을 재촉하는, 새로운 타입의 정보 사회로 향하는 것은 아닐까. 정부는 "Society 5.0"이라고 하는, AI, IoT, 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SDGs 등을 포함시킨 비전을 책정했지만, 약간 테크놀로지에 치우친 총체적인 경향이 있다. 이미 대학에는 생명정보학과, 창조정보학과, 디자인정보학과 등이 탄생했다. 내실은 지금까지의 분야의 전문가를 조합하고 있는 것이지만, 방향으로서 그러한 테크놀로지를 일탈하는 분야로 퍼지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단지 "생명 사회"라고 했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공업사회의 연장으로서의 정보사회가 아니라 문명의 방향전환으로서의, 공업사회, 정보사회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사회이다.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사회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세계적인 위기여서 일본이 변하지 않더라도 세계의 풍경이 바뀔 수 있다. 상당히 각오를 하고 장래를 내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녹슨 중앙집권사회에서 생생한 지방분권사회로 넘어간다면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 중앙집권을 목표로 한 메이지유신과는 반대 방향이지만, "일신"함으로써, 같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중앙집권형 공업사회'에서 '지방분권형 생명사회'로 패러다임 전환. 희미하게나마 그런 기운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신형 코로나와의 싸움을 기회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지체체의 장이 제후해 정치를 바꾸어 나라를 바꾸는 것에 기대하고 싶다.

### 13.“신종 폐렴” 왜 긴급사태선언 발령은 늦었졌는가 (Voice, 2020.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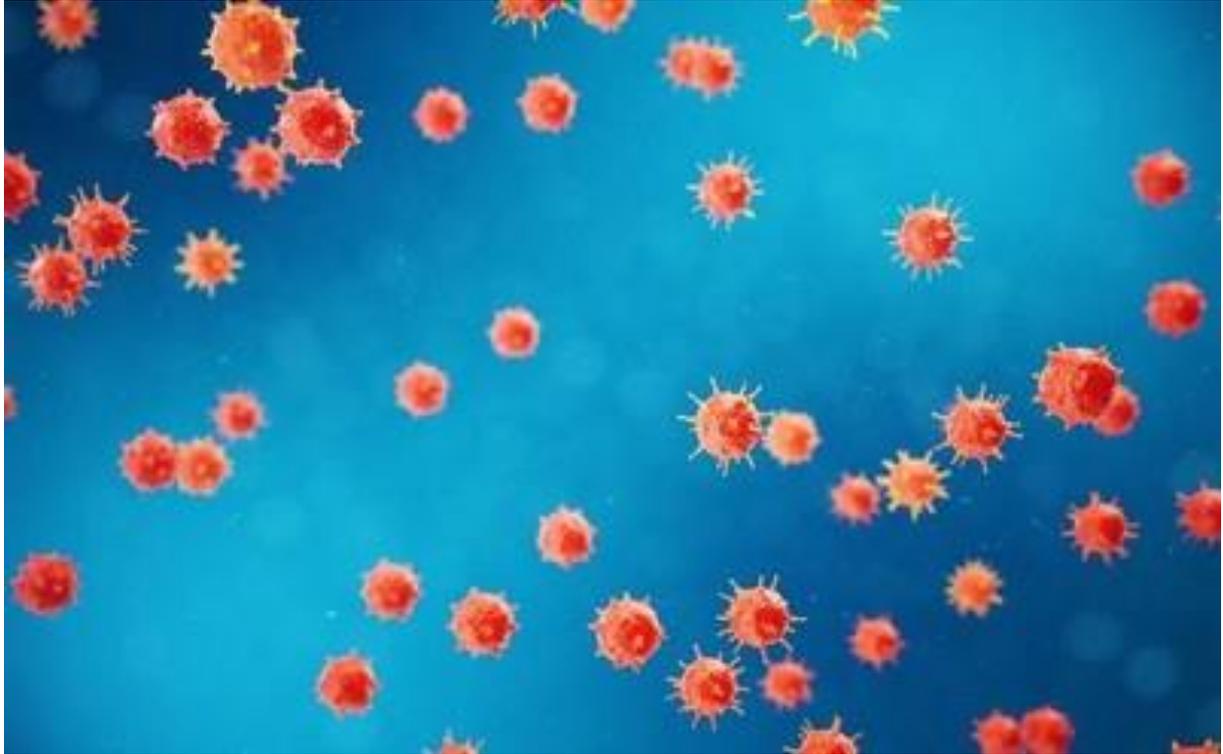


사진 1) 출처: Voice.

일본대학 위기관리학부 교수로, 내각관방 신형 인플루엔자등 대책 유식자회의 위원 후쿠다미쓰루씨는, 발매중의 월간지 "Voice"5 월호에서 일본인의 위기의식이 적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 긴급사태선언 “지연”

코로나사태 속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4 월 16 일에는 긴급사태 선포가 전국에 발령됐다. 일본대학 위기관리학부 교수로, 내각 관방 신형 인플루엔자등 대책 유식자 회의 위원을 맡는 후쿠다 미쓰루씨가, 선언 발령이 늦은 이유를 지적한다.

본고는 월간지 『Voice』2020 년 5 월호, 후쿠다미쓰루씨의 '신형폐렴, 긴급사태선언을 두려워 말라'로부터 일부 발췌, 편집한 것이다.

#### 일본 정부가 해야만 했던 일

위기 관리에 있어서의 "인텔리전스"의 다음의 기능은 "보안"이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 감염증이 외국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 보안 대책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가 대책이다. 출입국관리에서의 검역, 방역체제의 확립과 사람의 이동규제가 그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일본의 출입국 관리의 검역, 이동 규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 등 여러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배려와 인권·자유를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며, 철저한 물가대책을 위한 이러한 과제에 대해 평상시부터의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

초동에서 우한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전세기 파견이나 크루즈선 대응 등은 세세한 전술 차원의 대응으로 대체로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 띄기 쉬운, 그림이 되는 현상에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됨으로써, 본래는 더 중요한 출입국 관리의 검역과 이동 규제의 수해 대책의 본질기에 자원이 할애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국내에 감염증은 들어오는 것이며, 물가 대책은 완전한 것은 아니다. 물가대책을 강화함으로써 감염증이 들어오는 것을 늦추고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사이에 국내의 감염증 대책을 강화하는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시책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떠한 법제도로 대응하는가, 하는 점이다.

1 월 하순부터의 일본 정부의 검토도, 국회에서의 논의도 여기에 집약되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법적 대책의 선택사항은 크게 2 가지였다.

첫 번째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증 분류에서 말하는 '지정 감염증'으로 함으로써 감염증법에 따라 대응하는 접근방식이다.

두 번째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부터 '신감염증'으로 지정하고 신종 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으로 대처하는 접근방식이다. 이 중 어느 쪽으로 할지 1 월 하순의 단계에서 결단이 필요했다.

아베 정권은 전자를 선택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정 감염증으로서 감염증법에 의한 대책을 2 월 1 일 시행으로 개시한 것이다.

왜 그런 의사결정이 내려졌는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종 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은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외출정지나 학교 휴교, 이벤트 중지 등을 지시할 수 있는 등 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매우 강한 법률이자 "공권력의 보도宝刀"다.

이것을 처음부터 도입한다고 표명하면, 국민이나 미디어로부터 비판이나 반발이 발생해, 감염증 대책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감염력은 강하지만 강독성은 아니며 치사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에 따라 강독성을 상정한 신종 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이 아니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로, 실제로 과거의 사례에서도 2003 년의 사스, 2006 년, 2013 년의 조류 인플루엔자, 2014 년의 MERS 도 지정 감염증으로서 감염증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경험에 따라,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례에 따라 지정 감염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 강권적인 대책을 싫어하는 매체와 여론

이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정 감염증이 되면서 폐해가 발생했다.

그 중 하나는 지금까지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내각관방과 후생노동성에서 준비, 운영되어 온 전문가 회의, 위원회 등의 멤버와 식견, 대책의 스킴을 이번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럴 수 있었다면 좀 더 부드러운 위기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애드혹(잠정적)으로 사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회의가 설치되어 유식자 회의도 새롭게 준비되어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던 유의미한 지식이나 대책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초동에 대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대응이 혼란한 원인의 2 번째이다.

결과론이지만 3 월 들어 결국 아베 정권은 신종 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긴급사태 선언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1 개월 후인 3 월에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왜 이것을 1 월 하순에 할 수 없었는지, 이 시간의 로스가 대책의 지연으로 연결되었던 것은 틀림없다.

위기관리란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는 것"이며 "헛스윙 삼진은 해도 명하니 삼진은 하지 말라"는 것이 철칙이다.

미지의 감염증에 대해서는 초동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강력한 대책을 취함으로써 감염확대를 막고 그 감염상황이 약해지면 대책을 해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막은 것은, 긴급사태선언등 강권적인 대책을 싫어하는 미디어와 여론과, 그 미디어보도와 여론의 동향을 과잉하게 신경쓰는 정권과의 사이에 발생한 말하자면 "바늘쥐의 연애"의 상황이 되어, 이러한 사태야 말로 위기관리의 효과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 트리아지 체제로의 이행이 필요

감염증 팬데믹에 대한 위기 관리상의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것이 의료체제의 구축이며, 의료의 실천이다. 대재해나 감염증의 팬데믹에서 환자가 급증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이나 대응능력을 넘는 사태를 "의료 서지"라고 부른다.

의료서지가 발생하면 본래 구할 수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사망자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대재해나 감염증 팬데믹에서 피해야 하는 것이 이 의료서지의 발생이다.

평상시에 요구되는 의료기관의 수나 대응능력은 한정되어 있으며 의료자원은 유한하다. 그 평상시의 의료자원 그대로 대재해나 감염증 판데믹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치료를 할 대상을 선정하는 트리아지가 불가결하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에서도 이러한 의료 서지, 의료 붕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트리아지를 실천함으로써 중증화 위험이 높은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감염 확대의 초기 단계에서는 감염증 지정 병원만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일반 병원 등의 원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염증 지정 병원만의 대응에 한정하는 것에 유효성이 있다.

하지만, 감염 폭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염 환자 모두를 감염증 지정 병원에서만 진찰, 치료할 수 없게 되어, 의료 붕괴가 발생한다.

감염 폭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감염증 지정 병원은 최대한 중증화 위험 환자에 대한 치료에만 집중시키고, 경증자나 미발증 감염자에 대한 대응은 일반 병원에 할당되는 정책적인 트리아지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염 확대의 중기 이후는 PCR 검사(미량의 검체를 고감도로 검출하는 수법)와 진찰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해야 한다.

#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 <과학 기술>

### 1.장강, 전염병 통제기간에도 수질 모니터링 작업 강화 (2020.3.10)

장강수리위원회 수문국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연합방위를 전면적으로 정착시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수질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과소소독제를 방제에 집중해 하천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급 수질 모니터링도 적극 실시한다. 장강수리위원회 수문국은 강 전역에 7 개 수질 환경 모니터링센터를 두고 있으며, 연일 각 수환경감시센터의 엄격한 통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 장강, 한강 등 관할 지역의 수질 모니터링 임무를 계속하고 있다. 각 수질 자동 모니터링소는 24 시간 내내 데이터를 채취한다. 2 월 2 일부터 작업 요구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유역 수질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유역 중대 우발수 오염사건 제로 보고제도를 가동한다. 장강 하류 수질 환경 감시센터는 19 일 이후 임시 교통통제조치 변화에 따라 관할 장강 간류인 구강~태주 강단 14 개국의 중점 수질 모니터링 단면에서 상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대통에서 태주 강단에 이르는 8 개 단면에서 염소 검출을 위한 응급 모니터링을 실시해 코로나 19 발생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로 했다. 우한(武汉) 전염병의 방제(防)는 전국 전염병의 방제(防)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한(武汉)의 수질 상황을 더욱 잘 파악하며 전염병의 방제 수요를 더욱 좋게 한다. 장강수리위원회 수문국 산하 창장 중류수환경모니터링센터는 잔염소 검출을 위한 휴대용 비상모니터링 장비를 긴급 구매했다. 교통난 등을 극복하고 모니터링 요원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우한 강단 4 개국 중점 수질모니터링 단면, 5 개 도시 취수구와 4 개 주요 시정 배출구에서 응급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 현장 샘플을 채취하고 검사한 결과, 각 점의 여염소는 검출되었지만, 수도 공장의 출수 기준보다 낮은 농도였다. 전염병 항역이 벌어지는 가운데 장강수리위원회 간부 직공들은 항전, 생산 확보, 어려움 극복, 최상의 서비스로 과학방역과 군센 정신적인 면모를 펼쳤다. 이후 단계는 상황 변화에 따라 상부의 의사결정 배치를 단행하고, 방역 요청을 엄격히 시행하며, 방제기 수질 모니터링 분석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 <금융>

### 1.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비, 천억 위안 초과 (2020.2.27)

"방역에 있어 재정적으로 아끼면 안된다"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 하에 중앙 정부와 국무원은 방역 경비로 더욱 많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 2020 년 2 월 24 일까지 방역비 누계는 1008 억 7000 만 위안(약 1 조 7000 억원)이며,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힘 쓰고 있다.

재정부는 2 월 24 일 정부부처 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및 경제사회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각급 재정 부문은 계속해서 전염병 방역 비용 예산을 높게 책적하여,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고, 전염병 방지 자금의 우선 보장과 지출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적 전염병 발생 시 지출수요 통제, 비용 우려로 인해 인민 대중이 진찰을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금 문제로 인한 의료구제 및 방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 공신부, 사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에 대한 요금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 (2020.3.4)

3 일 정보통신부는 각 지역 통신관리국 및 기간전기통신업체에 네트워크강화, 플랫폼 능력 향상, 요금 할인, 네트워크 유지, 방역 기간 동안의 온라인 교육 등 업무에 더욱 집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신부는 각 지역의 통신관리국이 기초 전기통신 업체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초고속 인터넷과 기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학교 네트워크 여건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선택된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업체에 플랫폼 역량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신부는 관련 부처와 각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대해 파일 다운로드 속도 등 핵심 성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전기통신업체들의 빈곤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독려해 인터넷 요금 압박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 3. 각지 세무 기관은 "사력"(四力)에 초점을 맞춰, 방역과 발전을 위해,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 (2020.3.10)

동서남북, 어디서나 봄바람 분다.

방역에 지지하면서 따뜻한 업무 복귀의 길에 오른다. 올해 좀 특별한 봄 가운데, 전국 각지의 세무부는 '사력'에 초점을 맞추고, '방역과 발전을 위해, 샤오강 (小康) 서비스 발전'을 주제로 2020 년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를 본격 가동하고, 24 의 따뜻하고 성의가득한 편민 정책이 새롭게 개최됐다.

### 절강: 입주기업 "종업원" 기업을 맞춤형으로 돕기

절강성 세무당국은 2020 년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가 시작된 이래 각종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조세기능을 발휘해 방역과 기업 복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절강성 세무부는 정치의식이 좋고, 담당의식이 강하며, 업무 수준이 높고, 서비스 능력이 뛰어난 세무간부가 입주기업의 '종업원'이되어 기업 생산 경영 최전방에서 서비스를 전개했다. 지금까지 파견된 입주기업 '종업원'이 총 1794 명, 서비스업체 11175 가구, 수집문제 4203 개, 그중 3719 개 해결됨, 감액해야 할 것은 감액되고, 면제할 것은 면제됨을 확실하게하여, 빠른 시일안에 정책 배당금을 발전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복구 빅 데이터를 지원하는 전담반을 설립하고, 세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복구를 지원하며, 기업의 수요 전반을 밀거름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 빅 데이터 분석을 핵심으로 하여 다자간 조율하고 광범위하게 연동하는 것이 관건이다. 3 월 2 일까지, 현재 135 가구의 납세자에게 해당 원재료를 공급한 대체공급업체는 모두 1482 곳된다.

### 사천: 꼼꼼한 "사천풍미"를 담은 서비스가 힘이 된다.

3 월 6 일, 사천성 세무부는 2020 년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 실행에 관한 주제 회의를 열었다. 본 세무부는 '방역과 발전을 위해, 샤오강 (小康) 서비스 발전'과 '사력'의 요구에 따라, 사천의 현황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30 여개의 정책과 98 개의 임무를 내세웠다. 그리고 전 성의 세무시스템은 세무총국의

배치에 따라 세밀하고 정교하며, 누락된 각 임무를 극히 잘 수행하도록 하여 납세자 납부자와 말단 세무인이 실감이 나도록 하였다.

사전성 세무부가 내세운 구체적인 정책은: 방역지지 및 기업부추여 어려움 해결, 기업 업무 복귀 적극 추진 ; 서비스는 성위양성(成渝双城)경제권 건설을 지원하며, '최대 1 회 주행' 및 '최초 위반' 통행 리스트 작성; 청두, 더양, 메이산, 즈양동시 활성화해서 이 네도시의 세금 서비스를 강화해야한다; 경험적 전형을 적극적으로 복제하여 "최대 1 회" 업무범위를 확장하고, 주요 서비스 사항의 90%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며, 세금 납부 서비스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전자세무국 취합 지급, 위챗도시서비스, 알리페이도시서비스의 지불기능을 개통하여 세금서비스의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추진하며, 수요에 대한 조언, 실사, 난제 해결을 위한 상시화 등 포함된다.

**호남: 팀플레이, 전원 실행**

3 월 4 일, 호남성 세무부는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 실행에 관해 온라인으로 주제 회의를 열었다. 당위원회 서기 및 국장 유명권(刘明权)은 회의에서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를 일순위에 잘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성심성의로 서비스제공하며, 우대 납세 정책을 실행해야한다고 밝혔다.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의 24 개조치를 이행 최적화 환경을 세금 납세자가 행사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는 세무부에서 중점적으로 호남성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착지했다. "전원이 참여해 팀플레이"를 바탕으로, 전 성의 3.4 만명의 세무 간부들이 팀 별로 구성되며 노동자 선봉, 대기업 서비스, 후원지지, 정책 해답, 순찰 감사 5 종류의 세수 정책 서비스팀으로 나뉘었다. "비접촉식"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책 수요를 묻고, 정책을 누리는데에 도와주고 있다. '풀서비스와 정교한 추진'을 관건으로 '1 종 1 책' 세금 편성 정책 안내, '1 가구 1 책' 지도 정책, 효율적 납세 서비스 관통 정책 홍보등 방식이있다. '전면 커버, 그리드화 착지'를 보장하며, 구역 면적, 납세자 가구 수, 세원 규모 등의 요소별로 구분하여 그리드별로 하나의 조세 정책 서비스 유닛을 배치하고 패키지화한다.

**강소: 서비스 업그레이드, 최고의 체험구로 만든다.**

3 월 6 일,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 실행에 관한 '클라우드 발표회'가 남경에서 진행되었다. 강소성 세무국국장 시평(侍鹏)의 소개를 따르면, 올해의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에서 강소성 세무시스템은 '세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조세경영 환경의 최적 체험구역을 심도 있게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여, 전쟁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강소성의 서비스를 높은 수준의 샤오캉(小康)사회를 전면적으로 만든다.

강소성 세무 시스템은 세무총국과 강소성 위원회 성 정부 배치를 전면적으로 정착시키고, 4 대항목의 30 개의 조치를 내놓으며, 방역과 기업 발전 촉진을 위한 결함을 지지하고, 조세 편의를 증진하고, 영상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런 조치들은 세무총국의 '편민 세금 행사'에 대한 요구사항의 세분화와 확대이자, '관제복' (放管服) 개혁을 심화시켜 달라는 주문에 대한 호응이자 실천이다.

'관제복' (放管服)은 개혁의 심화될 것으로 세무부에서 추진하는 만나지 않고 세금문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비접촉식" 세금 서비스의 추진력이 더욱 높아졌다. 현재 98%의 강소성 세금업무는 온라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납세자의 93%은 우편을 통해 영수증을 수령하고 세금 납부 원가 인하로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 월에 강소성 세금 납부 유예 승인 항목에 납세자 5000 가구로 유동성 공급이 넘는 자금 40 억원 가까이 된다.

**광서: 30 개의 조치로 "봄 바람"을 더 따뜻하게**

3 월 2 일, 광서성 세무부는 당위원회와 리더들이 모여서 2020 년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를 전개하고, '방역지원 및 조력기업 재생산 지원'으로부터 조세기능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국가와 지역의 발전전략을 위한 서비스', '편리한 세입세출, 일류 조세영사환경 조성' '규제법 집행 최적화, 납세(납부)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부문 협력 강화, 납세자(납세) 만족도'등 방면에서 30 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내세우고 임무 나눔과 시간 진도도 명확하게 세팅하여, 여러 업무가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세밀한 조치는 감염이 심한 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요청, '일대일' 지원책 실시, 업무부문 정기적 협력 추진등이 포함되어 있고, ' 편민 세금 봄바람 행사'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따른 납세서비스와 세비관리 부문별 협력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고 "봄바람"사업의 맞춤형 문제 및 실용성을 높여야한다. 지방당위정부, 관계기관 및 주요기업 업종의 정보 수요에 따라 조세 데이터 입체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하여, 조세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하고, "은세 연계"를 심화해서 2019 년 광서성의 "은세 연계"대출이 500 억 위안을 넘는 기초에서 새로운 성장과 성과를 취득하고 납세자, 특히 중소기업 납세자의 용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한다.

<의료>

**1.시진핑, 북경서 코로나 연구 및 대응 상황 시찰시 코로나연구를 공동추진하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과학기술적 뒷받침이 되어야한다고 강조 (2020.3.2)**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시진핑이 2 일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되는 '코로나 대응연구'에서 당 중앙을 대표해 과학연구 일선에 진출한 과학기술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는 인류가 질병과 겨룬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학기술이라며 인류가 대재앙을 이겨낸 것은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방지와과학연구를 중요하고 긴급한 임무로 하여, 다학과 역량을 종합하고, 리드를 통일하고, 협동추진하여, 과학성, 안전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연구개발 진도를 가속화하고, 전염병 대응의 중점 난점을 조속히 공략해야 한다.

시 주석은 2 일 오후 군사의학연구원을 찾아 코로나 방지 연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받고, 백신과 항체 연구, 약물 선별, 바이러스 발병기리 연구, 신속 진단법 연구 및 응용 상황을 보고 받았다. 시 주석은 기기실험건물에서 바이러스 약물 연구실을 둘러보고 자리를 지키며 난관을 돌파한 일선 전문가와 연구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완치율을 높이고, 치사율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에는 과학기술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 이후 군사의학연구원이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정책결정 지시를 관철하고, 명령을 듣고 즉시 행동하며, 시간과 싸워 집중적으로 응급과학 연구에 투여해서 단계적 성과를 거두고 인민군이 당과 인민에 충성하는 본질과 고된 싸움에 강한 모습을 충분히 나타냈다. 시 주석은 이들이 더 분발해 돌격대와 주력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약물, 검시제를 조속히 개발해 항격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가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방면에 힘을 합쳐 난관을 돌파해야 하며, 이 전투를 통해 자주 지적 재산권을 가진 핵심 과학기술을 더 많이 장악하고, 더 많은 하드카피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시진핑은 군사의학연구원을 떠나고 칭화대 의대를 찾았다. 그는 세계건강전염병연구센터, 생물의학검사기술 및 기기인 베이징실험실에 들어가 혁신적인 약물 개발 진행상황과 신종 테스트제, 검사장비 개발 응용 등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 중인 효소연면역 흡착시험을 봤다. 시 주석은 "코로나 퇴치 투쟁은 1차 최전선과 협조해, 과학연구와 물자 생산선, 2개 전선이 서로 협력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전방과의 협력 강화, 조직 슬림화, 시급한 일 처리, 신종 검험제항체백신치료 방안 등 문제를 가속화할 것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나라가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이라며 "중대한 발생과 돌발적인 다중위생 위험을 예방하는 일은 항상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중대 바이러스 감시 네트워크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법규 체계를 정비하며, 첨단 기술 공격과 첨단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해 중대한 돌발 대중 위생 사건에 대한 우리의 대처 능력과 수준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

시 주석은 이어 칭화대 의대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의약품과 백신 개발 사업, 국가위생건강위의 효과적인 임상응용 경험과 효과적인 진료 방안 등을 종합해 보급하는 상황을 보고받았다.

보고 받은 후, 시진핑은 중요한 연설을 했다. 그는 당중앙의 호소에 전국 과학기술전선이 호응해 한 달여간 임상치료와 약물백신 연구개발, 검사기술과 제품, 바이러스 병원학과 유행병학, 동물모형 구축 등 5개 분야의 과학연구팀을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대한 투쟁에서 많은 과학기술자들은 필사적인 봉사의 훌륭한 기풍, 엄밀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지금은 인민전쟁과 총력전, 저격전에 이기기까지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수록 과학에 대한 답을 꾸준히 탐색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시주석은 최선을 다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며, 의료 장비 강화와 약물 개발을 결합해 임상 치료 완치율을 높이고, 치사율은 확실하게 인하됨이 보였다. 그리고 연구의 뒷받침과 서비스 전방의 치료 배치를 강화하고 임상연구와 임상치료의 시너지를 견지해 연구성과가 임상일선으로 쏠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약물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중의약과 병용을 견지하며, 이미 개발되고 선별된 유효 약물의 보급을 가속화하며, 일선 치료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제를 선별하여 새로운 치료 수단을 모색하여, 가능한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혈장 회복, 줄기세포, 단백질 항체 등 선진적인 치료방식으로 중증 위중증 치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

백신 제품은 건강한 사람에 사용되는 특수제품으로 방역에 대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1 위다. 기존의 다양한 기술노선인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외국의 연구개발 진도를 면밀히 추적해 백신의 임상시험과 시판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백신 개발과 산업화 체인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하고, 기업을 주체로 산학연구를 결합한 백신 개발과 산업화 시스템을 가속화하고, 국가 백신 비축제도를 만들어 상시화 방역을 준비해야 한다.

시 주석은 바이러스의 근원과 전파 경로를 확보하고 바이러스 단백질과 수용체의 결합 특징을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동물이 중간 숙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역학과 소원조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내 정밀도와 검사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어서 시주석은 환자의 심리회복은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집에서 격리된 군중이 생기면서 이런 저런 심리적 문제도 생기고 또한 사망자 가족들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이들의 심리적 건강을 중시하고 각 분야에서 역량을 동원해 건강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시주석은 심각한 전염병과 생물 안전 리스크는 국가 안보와 발전, 그리고 사회 전반의 안정에 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생물안전은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평시와 전시, 예방과 응급의 결합, 과학연구와 구치의 통합을 견지하며, 역병 방지와 대중위생 과학연구의 난관과 능력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각 분야의 과학 연구 역량을 총동원하여 체계화적인 대응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전략기획을 강화하고, 경보예측체계를 보완해 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포획하고 즉각 대응해야 한다. 전염병이 번진 후의 과학 연구등의 지휘·행동·보장 체계를 연구하고, 평상시에 응급 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가동해야 한다.

시주석은 생명안보와 생물안전 분야의 중대한 과학기술이 국가전략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했다. 핵심기술이 공략되는 새로운 거국체제를 정비하고, 인구건강·생물안전 등의 분야의 연구 역량 배치를 가속화하며, 생명과학·생물기술·의약위생·의료설비 등의 분야의 국가 중점 연구 체계를 통합하여, 보건의학 연구센터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고급 의료장비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핵심기술의 공략을 가속화하며, 기술장비의 한계를 돌파해 고급의료장비의 자율화를 꾀해야 한다.

시 주석은 환경 개선, 식습관, 사회심리건강, 공중위생시설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한 애국위생사업을 펼쳐야 하며 특히 야생동물을 먹는 인습을 단호히 근절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을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공공 위생 안전은 인류가 직면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며,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가 여러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니 세계보건기구는 관련국들과의 소통하며 강화하여, 관련국가, 특히 코로나 고발 지역은 약물, 백신, 검사등에서 협력해서 연구하여 데이터와 정보 공유하고 대응 조치를 세워야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기여한 지혜와 역량을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딩쉐상(丁薛祥), 류허(刘鹤), 쉬치량(许其亮), 장요우샤(张又侠), 샤오재(肖捷) 그리고 과기부 및 국가위생건강위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

## 2.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회사업무재개에 대한 방제지도 강화 (2020.3.9)

국가 보건 건강 위원회는 최근 각 지역의 위생 건강 부서에 기업 복귀 기간 동안의 전염병 예방 통제 지도 업무를 강화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통지 요구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세세하고 정확하게 나누어 정밀하게 예방 통제를 전개할 것이다. 기층질량통제기구와 직업병퇴치원소 등을 조직하여 상담전화, 워킹단체방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방역작업을 점대점(点对点) 지도하고 있다. 향진위생원과 지역위생서비스센터를 조직하여 외출근무와 귀임 농민공을 위한 방역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조속한 업무복귀와 근로자의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마다 방역과 직업건강검진을 총괄하고 고위험과 중위험지역에서는 직업건강검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은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취업시킬 때 총 업무 시 존재하는 질병에 대한 위험성과 금기증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근로자가 관련 질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업건강의 요구에 맞게 취업을 알선해야 한다.

## <정책>

### 1.교통운수부, 선박선원 covid-19 전염병 예방통제 운영지침 발표 (2020.3.3)

3일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교통운수부 해사국은 최근 '선박 선원 코로나 19 방역 매뉴얼(V1.0)'을 발표하고 선박과 선원에 대한 방역작업을 지도해 세계 최초로 해사 주관기관이 발표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교통운수부 해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침은 선박통제의 신관폐렴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해사기구의 최신 지도적 문서를 참고하고, 중국 해운업체의 선박통제 실천과 결합하여 운항회사의 방제도 수립, 선박의 방제조치 정착, 선원 개인 방호 강화, 의심환자 응급조업, 의심환자의 보고, 선원의 심리건강조절, 발생정보 조회 등 7개 분야를 통해 선박 승조원들의 신관폐렴 단속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수송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급 단속도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침은 업계의 선박 선원 보호 강화와 자기 보호 의식, 자질,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해운업에 대한 선박 운항 통제를 현실적인 지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전염병 발생 예방 및 통제 일선 의료인원에 대한 인사격려조치에 관한 업무지침 (2020.3.5)

시진핑 총서기의 코로나 19 방지 및 경제사회발전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회의에서의 중요 담화 정신을 심도 있게 관철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사업소 인사관리사는 코로나 19 대응 업무 영도소조인 '의사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에 관한 통지'의 요청에 따라 격려 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관심있는 일선 의료진을 정착하고 일선 의료진에 대한 배려를 위한 인사 독려 조치를 관철하고, 신종관상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한 폐렴 방역 기간 중 사업장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청사 통지'를 관철해 다음과 같은 업무지침을 제시했다.

一、각 지역은 방역 기간 중의 각종 의료진의 즉각적인 장려 작업을 더욱 잘하여, 방역 일선에 공헌한 의료진에게 중점을 뒤야 한다. 시기적절한 인센티브는 코로나 예방 통제 기간 중의 업무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인센티브 요건과 공인에 부합하며 비율(정원) 제한을 두지 않음을 부각해야 한다.방역작업에서 탁월한 활약을 보여 인센티브 요건에 부합하는 고(故)인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二、방역 일선 근무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직함이나 전문기술직 등급 승진을 우선하고, 방역 일선 근무에 대한 참여가 두드러지며, 기공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거나 같은 직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의료진은 직접 채용할 수 있다. 업체가 공석이 없는 경우, 특설직 등의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부서의 업무 구조에 비례하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三、의료 위생 사업 부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이번 전염병 예방 통제 업무에서 보여준 표현을 금년도 심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방역 일선 근무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은 연간 우수 인원을 별도로 심사해 늘릴 수 있으며, 직장과 해당 지역 연도별 우수 비율을 제한받지 않는다.

四、각 지역 인사종합관리 부처는 위생건강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현재 방역업무에 적응하고 적시에 장려할 수 있는 자재와 절차를 적절히 간소화해 일선 의료진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는 시기적절한 인센티브의 요건과 양을 파악하여 일선 의료진의 시기적절한 인센티브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 근무자의 시기적절한 인센티브는 방역이 끝난 후 조직을 통일할 수 있다.

## <취업>

### 1.퇴역군인사무부: 10 가지 조치, 전역군인 취업창업 촉진 (2020.3.14)

퇴역군인사무부는 최근 전염병에 대비해 퇴역군인의 취업창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고 10 개 항목으로 전염병 기간 중 퇴역군인의 취업창업 추진을 제안했다.

목표를 확고히 하고, 목표를 지키며, 문제의 가이드, 성과 가이드를 제시하며, 그 동안 퇴역 군인의 취업 창업에서 직면했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10 가지 조치를 제시하였다.

1. 교육용 취업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여 상시적인 연계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로컬 워크플로우, 일자리, 직업 기능 교육 등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적시에 배포, 온라인 취업 서비스 프로그램의 풍부, 건설입하층 퇴역군인 휴게소는 퇴역군인과 상시적으로 연계해 취업 정보 막힘없이 제공한다

2. 말단 방역에 대한 단계별 일자리 제공이다. 말단 의료, 사회봉사 등의 일자리를 늘려 퇴역군인을 모집하고, 도농지층, 산업단지, 서비스업종에서 고용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한다. 퇴역군인들을 전염병필수 방역, 필수 운영 공공사업, 필수 군중 생활, 그리고 기타 국가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업종에 종사하게 하는 기업의 취업을 유도한다.

3. 온라인 교육과 채용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온라인 채용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수업, 채용 지속'을 비롯해 퇴역군인의 대졸자에 대한 온라인 직업지도와 취업상담을 활성화한다.

4.기업과의 계약협력을 가속화하고 취업의 길을 넓히는 것이다. 중점 업종, 대기업과 나눠 취업협력을 하고, 속도를 높여 일자리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5. 좋은 우대 정책으로 학력 교육에 참가하도록 장려한다. 석사대학원생 모집 확대와 편입 선정을 위한 국무부의 의사결정 배치를 널리 홍보하고 일부 퇴역군인 특히 퇴역 대학생 병사들에게 '선 입학, 재취업 창업'을 독려하는 등 각종 전형 우대정책을 추진한다.

6. 직업 기능 향상에 동참하도록 이끈다. 퇴역군인 적성훈련과 직업기능훈련을 국가 직업기능향상 행동계획에 포함시키고, 신규 퇴역취업병사들에 대한 적성교육을 전면적으로 보급하며, 기능훈련 참가 의사가 있는 올해 일반교육을 실현한다.

7. 교육관리와 일자리 맞춤화를 강화한다. 훈련 기관 목록을 만들어 과학의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퇴역 병사의 취업 직업 목록을 잘 참고하여, 용공 직장, 퇴역 병사, 교육 훈련 기관과 양성의 시너지를 유도한다.

8. 적극적으로 직무를 도와준다. 퇴역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과 소기업 취업을 위한 정교한 지원, 제대군인 취업 우선 해결, 실업퇴직군 재취직자 재취업 지원 등이 추진된다.

9. 효과적인 창업 보조를 제공한다. 창업 보조금, 금융 특혜기업 등의 정책을 조화시켜 창업 지원과 고용 창출을 장려한다. 창업 멘토와 창업 퇴역 군인의 온라인 도킹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인큐베이션을 유도하는 기지는 퇴역 군인 창업자들에게 저비용, 전문화된 창업서비스를 제공한다.

10. 실제 경험을 위주로 홍보를 추진한다. 전염병 방역을 폭넓게 수집하고, 회사 업무 재개의 효과적이고 유익한 방법과 퇴역군인의 선례, 영광스러운 사적을 폭넓게 수집하여 보도를 하며 적극 홍보하고, 퇴역군인의 취업 창업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각급 퇴역군인 사무부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배우고, 사상적 인식을 확실히 제고하며, 퇴역군인 취업창업 사업을 당 중앙으로 통일하고, 국무원의 의사결정을 받아 배치하여, 빈틈없이 현장을 장악해야 한다. 최근 국가가 내놓은 세비 감면, 금융지원 등 고용안정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전염병 기간과 향후 1년간 퇴역군인 교육훈련과 취업창업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

## KIC 중국 NEWS

## 1. KIC 중국, 중국기술거래소와 MOU 체결 (2020.4.22)



사진 1) 출처: KIC 중국. 사진설명(왼쪽부터 중국기술거래소 孙长 부총재,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

[KIC 중국 황대연 연구원]

KIC 중국은 22 일 중국기술거래소와 MOU 를 체결하였다.

중국기술거래소는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으로 과기부, 국가지적재산권국, 중국과학원베이징시 인민정부 합동으로 설립한 기술거래 서비스 기관이다.

본 MOU 는 한국과 중국의 창업자에게 전문화, 맞춤형 된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양국의 혁신창업기업들이 서로 소통하며 상호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IC 중국은 중국기술거래소와의 MOU 체결을 통해 한중 과학기술기업 혁신창업대회와 프로젝트 로드쇼, 양국 과학기술기업 교류정상회의, 과학기술 박람회, 쌍방향 투자 인큐베이션 등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하이테크 기술 프로젝트 발표회, 투자유치회, 인재교류회 등의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하여 각 국의 자원과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중국기술거래소는 중국 각지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 과학단지, 기관, 기업과 협력하여 거래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결합한 서비스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금번 MOU 를 통해 KIC 중국은 한국기업이 중국 진출하는데 진일보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